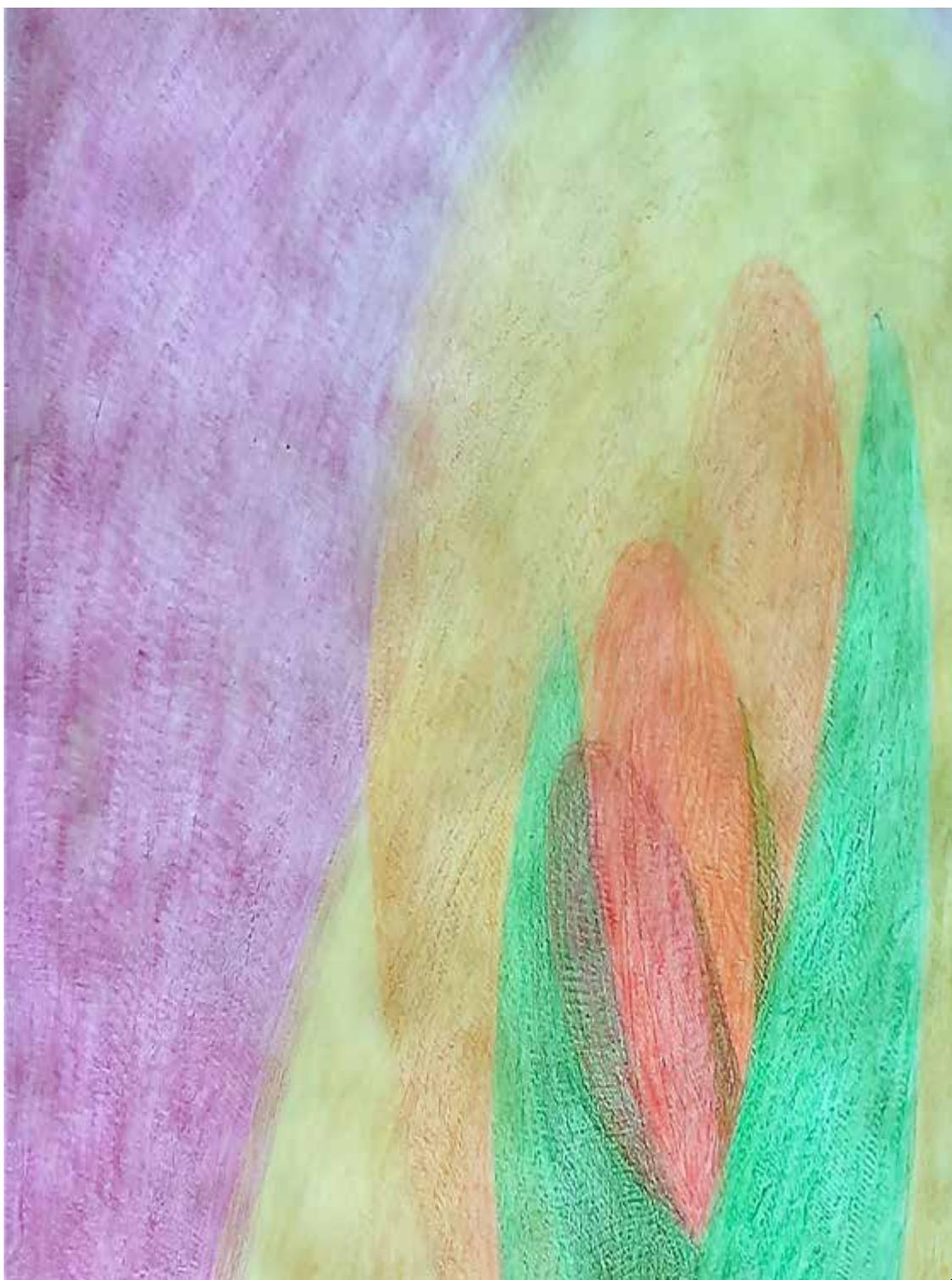


2018
가을호

인지학센터
소식지

실천하는 인지학

반도르프 교육예술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는

인지학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그 응용 분야들을 한국에 널리 알리고자 1999년 연구모임을 시작으로 2000년 3월 발족하여 2008년 사단법인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실천 분야 가운데 특히 우리 사회의 교육 현안에 자극제가 될 수 있는 발도르프 교육예술을 전달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인지학센터는 유네스코가 선정한 21세기 혁신 교육 모델 “아이의 본성을 존중하는 발도르프 교육”을 실천하는 영유아 및 학교 현장, 방과 후 돌봄 교실, 혁신학교 등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부설로 2011년 설립된 나임발도르프평생교육원은 발도르프 교육 전문기관으로 우리 사회의 건강한 보육·교육·자녀 교육을 위한 가치관 정립을 위해 현장 교사와 학부모에게 다양한 강좌를 펼치고 있습니다.

2016년 설립된 한국인지학출판사는 슈타이너 전집과 발도르프 기본 교육서 번역이 절실하다는 여러분의 요구에 부응하여 긴요한 자료들을 간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2017에 설립된 서울 오이리트메움 예술원에서는 새로운 동작인 예술 오이리트를 통해 발도르프 교육예술 운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목차
작업예정

2018 여름
교사 아카데미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예술가 양성과정

2003년 여름부터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대학과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유아(0-7세)의 본질과 발달을 새롭게 이해하고 특수아동을 포함한 유아기의 발달 문제에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교사의 현장 능력과 내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 과정에서 총 여섯 학기 동안 900학점을 이수하면 발도르프 영유아교사 자격이 부여됩니다. 2018년 여름 아카데미는 9기 다섯 번째 학기였습니다.

기간 2018. 7. 28.(토) ~ 8. 3.(금)

8:30-18:30 (69명 참석)

장소 여성가족재단 * 대방동 여성플라자 2층

인지학과 교육심리학

마르셀 드 레이브 Marcel de Leuw / 통역 이정희

슈타이너의 7년 주기론(0-70세)

영유아 발달과 교육적 과제

평생을 좌우하는 교육이란?

하부위 감각

아동관찰

비르기트 크로머 Birgit Krohmer / 통역 강수연

교수방법론

마르티나 힌츠 Martina Hinz / 통역 오윤선

이야기 들려주기 : 판타지를 자극하는 언어

이야기 선정 기준

인형극 무대 만들기와 시연

수공예

한은숙 김윤희

인형극을 위한 인형 제작과 소품 준비

예술

이윤옥

영유아 현장에서 교사가 부르는 노래

인지학과 교육심리학

강의 발췌

마르셀
(통역 이정희)

“우리의 목표는 대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사람과 관련되면 가슴에 품고 진심을 다해 이해하려는 태도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탐구하는 자세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면 금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해하고 살고 있나요? 꽃이 어떻게 피어나는지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그 꽃이 피나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아시나요? 비행기는 타지만 진짜 비행기가 어떻게 뜨는지 아시나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비행기를 탑니다. 사랑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르지만 부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꽃이 어떻게 피는지 잘 모르지만 꽃이 피면 우리는 좋아합니다. 저는 인지학을 오래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잘 못 하면서도 연구합니다. 우리는 대상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거부하면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내적 성장을 지향하는 자세,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

면 어느 날 문득 조금 보이기 시작하며, 역시 조금 이해가 되면서 배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아이가 성장하는 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 그 자체가 엄청난 의미를 지닙니다. 아이와의 현장 생활 속에서는 교육자인 나의 행동이 크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행하는데, 자동화되어 기계적으로 행한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아이에게 무엇이 일어나고 흘러가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인지학에서는 지양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위가 모두 의식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말은 무의식 속에 들어 있다가 어느 날 의식 위로 올라옵니다. [...]

정리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인지학을 배우는 것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이해한 것을 토대로 행동을 잘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동을 잘 이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동 관찰

강의 발췌

크로머
(통역 오윤선)

“오늘은 슈타이너가 말하는 호흡과 수면을 다 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호흡 과정은 들숨 과 날숨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공기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공기 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은 같은 공기를 들이 마시고 있습니다. 호흡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는 들숨과 날숨을 통 해 공기를 들이마시고 우리 몸을 거친 그 공기를 다시 뱉어 냅니다. 그런데 식물은 반대입니다. 그 런 의미로 자연과 인간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 다.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들숨으로 산소를 마실 때 식물은 산소를 내뿜어 줍니다. 그렇게 식물과 상호관계 안에 있기 때문 에 사람과 자연은 하나입니다. [...]”

사람은 이렇게 자연과 함께 연결될 수밖에 없으 니 자연과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각 자 어떻게 호흡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산소를 마시면 그 산소가 우리 몸 안의 모든 기관을 통해 작업하는데, 그것을 배출하는 과정을 감각 차원에서 설명하자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받아들이 면 그에 대한 상이 생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 은 자연, 혹은 우리의 바깥세상이 비춰지는 것과 연 결됩니다. 다른 예로, 우리가 귀 기울여 들으면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울림을 줍니다. 소리는 감각적 으로 우리를 통과하여 내면에 작용합니다. 사실 상 이 생기는 것은 내가 바깥과 어떤 조화를 이루어야 가능합니다. [...]”

영유아에게 감각 체험은 진짜이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특히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알아 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세상은 신이 창조한 대 상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들이 꾸며낸 가 짜 세상이 아니라 진짜 세상을 만나야 합니다. 구 체적으로는 진짜 맛을 경험해야 하는데, 인공향을 첨가하여 진짜 맛으로 진짜처럼 착각하게 하는 것 은 좋지 않습니다. 딸기 향을 가미해서 음식을 만 들거나 딸기 모양으로 만들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좋지 않습니다. [...]”

정신적 존재로서 세상과 연결된 사람이 감각 을 통해 세상을 알려고 할 때 그 세상이 가짜라면 그것은 끔찍한 일이지요. 정신적 영혼의 존재가 진 짜 세상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진짜처럼 꾸 며낸 세상을 먼저 만나는 것은 아이의 발달에 좋 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 과학에서 는 이런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사람은 속임을 당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단맛으로 들어 가 보면, 자연으로 달게 하는 것 말고 인공으로 달

게 한 것은 일단 입에서 단맛을 느낍니다. 그러나 몸 어디에선가는 이것이 가짜 단맛이라고 알고 다 른 작용을 일으킵니다. 내면에서 진짜 단맛을 원 하며 더 요구하게 됩니다. 저칼로리가 되도록 덜 달게 한다든가 저지방 식품 가공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줄였지만 몸에 들어가 작용할 때 는 더 단맛을 요구하게 되므로, 결국 총량으로 보 면 더 많이 먹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양학에 서 알아낸 것은, ‘마치 무엇처럼’ 하는 방식으로 제 공되면 몸에서 다르게 더 많이 요구 한다는 사실 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중독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즉, 우리 몸은 가짜에 만족하지 못하고 진짜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적, 정신적 존재는 진짜를 만나 고 싶어 하지, 진짜 같은 가짜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교육자는 자극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 요합니다. 보통 ‘멍 때리기’라는 말은 꿈꾸는 듯한 상태를 말합니다. 아이에게 멍 때리기를 허용하지 않고 마구 자극을 주면 그 자극들이 누적되어 체 하는 현상을 가져옵니다. 깨어 있는 상태에서 ‘멍 때리기’는 중요합니다. 잠잘 때 낮에 일어난 자극 들을 정리합니다. 정리 과정에서 정리가 안 될 정

도로 자극이 많으면 잠잘 때 용량이 초과되어 작 업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해 ‘멍’ 하 는 시간은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멍 때리기’는 아이디어를 지켜주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아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조절하게 두 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깨우고, 작 업하고 지우는 것을 자기가 알아서 조절해야 합니 다. 산만한 아이들은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 니라 그냥 자극에 대하여 스위치를 끄거나 또는 아무 때나 반응하는 겁니다. [...] 건강한 유아교육 은 정신적 영혼의 존재가 신체와 결합하는 것을 도우며, 이 때 적절한 수면과 리듬이 중요합니다.”



교수 방법론

강의 발췌

힌츠
(통역 오윤선)

“한번 눈을 감고 내 앞에 공주님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모두 공주님을 품고 계시지만 각자 서로 다른 공주님을 품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영화뿐 아니라 여러 매체를 경험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자의 상상이 다를 것 같지만 다르지 않은 비슷한 공주님의 상을 만들어 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미디어가 가진 힘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만들어진 외적인 상 말고 다른 공주님 상을 가질 수 있을까요? 디즈니에서 볼 수 있는 공주님 외에 다른 공주님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서양에서 보여주는 대로 공주님의 존재를 낯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쉽고 빠르게 상으로 떠올립니다. 이런 것들은 외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한 캐릭터 그림이며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 없이 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동화 속에 있는 공주님들이 어떤 존재인지 질문해 봅시다. 공주의 '원형'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연히 원형이라 함은 공주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혼의 특성들입니다. 공주의 영혼적인 특성들을 우리는 각자 개인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개구리로 변한 왕자의 본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디어를 통해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각인된 상들이 내면을 위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주거나 인형극을 보여줄 때는 미디어를 통해서 각인된 상이 아니라 나만의 원형의 상들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들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을 찾아야 그것에서부터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어떤 존재가 지닌 원형적 특징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인형극에서 보셨듯이, 인형 형태는 단순하고 단조롭게 만들었습니다. 등장인물 전체가 그렇습니다. 인물의 표정들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나만의 상상력을 통해서 제각기 다른 표정들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유아기에는 이렇게 상상력을 길러가게 됩니다. 동화를 인형극화해서 아이들에게 들려줄 때는 아이들만의 상상력으로 무언가를 첨가하고 보충해 낼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상상력을 기르는 교육의 토대입니다.

<중략>

이야기에 등장하는 원형의 상들은 우리가 무의식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그림들입니다. 깨어있는 의



식을 가진 현대인은 그러한 상들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이 도리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동화를 읽거나 연구 작업을 할 때 이해를 위해 한 부분만 인위적으로 선별하여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세기에 동화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는 시도가 있었고, 동화를 역사적으로 해석하려는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동화를 비판적인 사고에서 다룬 것은 인간이 도덕적인 상황 속에서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지, 도덕적인 면을 어떻게 잘 키울 것인지, 동화가 인간으로 하여금 현대 사회에 잘 어우러지도록 하는 토대가 될 수 있는지를 묻는 비판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이런 접근법에는 동화가 지닌 원형상이 잊혀지고 인위적인 해석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빨간 모자》에 대한 상을 왜곡합니다. 이 동화에 들어 있는 잔혹한 장면들을 다 빼고 각색하기도 합니다. 늑대가 빨간 모자를 삼키는 장면을 빼고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늑대가 삼키기 전에 빨간 모자가 장롱 속에 숨어 있게 바꿉니다. 늑대가 잡아먹기 전에 사냥꾼(아빠)이 와서 아이를 구하는 것으로 변형시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이런 각색으로 전래동화가 가지고 있는 내용과 요소를 우리의 시대 상

황에 알맞게 변형시켜서 전달합니다. 옛이야기를 바꾸어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원래 그 동화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전래동화는 내적으로 열린 자세를 지녀야 그 진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사진 설명
(위쪽부터)

- 세 마리 염소와 거인
- 맛좋은 죽
- 마생카와 곰

발도르프 영양주사 한 대 맞으러 왔습니다

후기

주나미 (광명 우리숲어린이집 교사)

학부모로 발도르프 교육을 알게 되었다가 교사로서 아이들을 만난 지 이제 2년차가 되었습니다. 이제 신생아 시기는 넘겼구나, 스스로 대견해하며 더 자라고 싶어서 설레는 마음을 안고 인지학센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배 교사 중 누구는 이 시간을 자기 공부를 위한 배움의 시간이라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가정과 직장에서 쌓인 피로를 날리는 치유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참 대단한 분들이지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휴가를 반납하고 짐통더위의 열기에 이끌거리는 도로를 지나와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걸 그렇게도 아름답게 표현하니요. 저도 한 학기 동안 아이들과 학부모들과 함께하느라 쉽고 자람이 절실합니다.

마르셀 교수님의 강의는 슈타이너의 7주기론과 12감각에 대한 상이 그려지는 수업으로, "모든 교육은 자기 교육이다."라는 말이 교사인 나 스스로를 교육 시킬 뿐만 아니라 몇

번의 육화를 거쳤을지 모를 존재인 아이도 스스로 교육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몇 번이나 책을 통해서, 그리고 동료 교사들과의 공부를 통해서 듣고 말하던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나의 마음에 확 와 닿다니 신기했습니다. 크로머 교수님의 아름다운 손동작과 풍부한 표현으로 구체적인 예들이 생생하게 전달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를 알고 싶은 교사는 나를 알아야 합니다. 나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을 알기 위해 인간학과 기질론을 접하며 나와 아이, 주위 사람을 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노래 부르는 것이 운동장 몇 바퀴는 뒀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이윤옥 선생님과 음악시간을 통해, 박자와 음이 정확한가를 신경 쓰며 고운 소리를 내는 것에 집중하는 가운데 나의 노래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천상의 소리가 나를 통해서 울리며 아이들에게 판타지를 줄 수 있고 공간과 계절을 느끼게 된다니, 제가 느낀 것을 아이들과 함께하고픈 맘에 어서 아이들과 만나고 싶다는 조바심이 일어납니다.

한은숙, 김윤희 선생님께서 차분하고도 꼼꼼히 진행해주시는 수공예 시간은 뽀뽀한 이론 일정에서 쉼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여기가 어색하지 않나?' 하며 선생님께 다시 설명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사진을 찾아보며 확인하면서 나의 머릿속 계획과는 달리 손끝에서 완성되는 양모인형들을 보며 아쉽기도 했지만, 또 그렇게 나만의 아

이들이 있는 그대로 사랑스러웠습니다. 모두 똑같은 설명을 듣고 같은 재료로 만드는데도 각자 개성이 넘치는 강아지, 곰, 할아버지가 완성되어 재미있었습니다. 힌츠 교수님의 동화와 인형극 시간에 외워서 들려주기, 인형극을 통해 보여주시는 내가 아이들에게 동화를 통해 전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제시해주고, 어떤 이야기를 선정할 것인가, 어떻게 들려줄 것인가 경중을 올려준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시대가 판타지가 없는 아이들을 생산해 내는 거라고 생각했던 나에게 이번 학기 공부는 교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고민하게 하고, 또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갖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부분의 어떤 말씀이 마르셀 교수님이 해주셨는지, 크로머 교수님이 해주셨는지, 아니면 힌츠 교수님이 해주셨는지 잘 모르겠다 싶을 만큼 모든 이론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오전 강의에 이어 오후 강의에서 다뤄지고 감각론과 기질론을 넘나들며 이야기라는 교육 실제에서 맞물려 드는 살아 숨 쉬는 강의였습니다. 이러니 교육예술가 과정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쾌한 통역과 촘촘히 배려해주는 운영진의 노력이 있었기에 온전히 교육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발도르프 영양주사 한 대 맞았으니 힘을 내서 2학기에도 쑥쑥 커야겠습니다.

발도르프학교 담임교사 양성과정

2012년 독일 비텐/안넨 발도르프 사범대학과 협력하여 출발한 발도르프 교사 양성코스는 2016년부터 슈투트가르트 발도르프 사범대학의 디플로마 과정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발도르프 학교 뿐 아니라 대안학교와 공교육의 혁신미래교육을 지향하는 교사가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고 아동 발달 (만7~14세)에 맞는 교수방법론을 통해 현장 수업 능력과 내적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입니다.

기간 2018. 8. 6.(월) ~ 8. 12.(일)
8:30-18:30 (36명 참석)

장소 여성가족재단 * 대방동 여성플라자 2층

일반 인간학과 교육심리학

안드레아스 크라코브 Andreas Krakow / 통역 여성훈

《일반인간학》 7~8강

생애 주기에 따른 발달과 변화

영혼적·정신적 관점에서 본 신경 작용

12감각

에포크 수업 방법론

마르가레타 레버 Margareta Leber / 통역 오윤선

지리 과목 전개 (4학년~8학년)

풍경을 수채화로 그리기

칠판그림 그리기

모니카 뒤르 Monika Dürr / 통역 김주아

칠판그림의 교육적 효과

아동 발달과 학년별 테마 선정

그리기 작업

예술

이윤옥

교육예술가를 위한 합창



"어느덧 1주일이 훌 지나갔네요. 제 가슴은 날씨보다 더 뜨거웠죠."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들, 우리 아이들 잘 키우고 겨울에 또 만나요

일반 인간학

강의 발췌

크라코브
(통역 여성훈)

“[...] 인간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건강한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다룬 것을 반복하겠습니다. 이 네모 그림은 화가의 캔버스입니다. 그 옆의 작은 것들은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물감들입니다. 그리고 화가가 있고 화가의 도구인 붓이 있습니다. 완성된 그림은 이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화가가 그림을 다 그린 후에 자신의 그림을 관찰합니다. 관찰하는 행위는 그림을 그리는 과정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일정한 과정을 통해서 생각하고 배우는 순서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화실에 한 자연과학자가 들어와서 그림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과학자 역시 그림에 완전히 집중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여러 물감들이 화학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관찰합니다. 그리고 캔버스의 구조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전 지식으로 상세히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캔버스가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물감은 또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그리고 붓의 터치와 물감의 두께 등을 관찰합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두꺼운 책으로 쓰게 됩니다. 자연과학자가 이렇게 분석해도 그림의 본질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분석은 결국 모든 과정이 일어난 후 관찰한 결과를 기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연과학자

는 그림의 모티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그림을 마주하여 내면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는 영혼적이고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뚫고 들어간다면 그림이 지닌 영혼적이고 정신적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그림의 영혼적이고 정신적인 것이란 그림을 그린 화가입니다. 화가가 물감을 가지고 영혼적이고 정신적인 작업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하여 그림으로 들어가 화가를 알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여러 가지 사실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과학은 우리를 위해 많은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오늘날 자연과학자들이 인간의 몸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아냈고 몸의 조적을 움직이는 화학작용을 점점 더 많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가 동원한 방법은 인간을 이해하는 데 적용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결국 광물 같은 것들을 관찰하기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더 나아간다면 식물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동물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과학의 성과들은 인간에 관해서는 정신에 대한 부분에 접근하지 못하고 멈춰버립니다.

자연과학은 인간을 보이는 형상만으로 과학



적으로 정리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자아(나)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정신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나의 '영혼' 부분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감각을 초월한 것입니다. 신체의 생명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초감각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초감각적인 것을 느낄 수 있는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루돌프 슈타이너는 이러한 것을 지각할 수 있는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일반적인 학계에서 그는 혼자만의 상상 속에 있는 인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

여러분이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은 에테르체나 아스트랄체의 요소들이 신체에 스며 있는 것입니다. 자연과학자가 이야기하는 물질에 중점을 두고 이 부분을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정신적, 영혼적인 존재가 보호막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장갑을 끼고 있는 듯이 말이죠. 우리 본질의 핵인 나(자아)는 에테르체의 옷을 입고 있어서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물질적인 육체와 거의 같이 드러나게 됩니다. 크기와 모습이 사람과 비슷한 에테르체가 무엇을 만드는지 우리는 알 수 없고, 그것은 신비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하는 내용은 현대 과학에서 하는 이야기와는 일치할 수 없

습니다. 현대 과학은 영혼적인 에테르체와 관련된 요소 또는 아스트랄체와 관련된 요소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림이 보여주는 외형은 우리의 몸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외적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고차적 본질이 사람 안에 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관찰할 때 기능과 관계된 조직 체계뿐만 아니라 영혼 작용과 관계된 생각하기(das Denken), 느끼기(das Fühlen), 행동하기(das Wollen)까지 함께 관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대화를 나누거나 책을 보거나 하는 경우에 다음 세 가지 기본적인 질문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내가 무엇을 들었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어떻게 들었는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어떻게 느꼈는가입니다. 느낌이라는 것은 각자가 서로 다릅니다. 어떤 부분에서 더 많은 것을 느끼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판단하거나 이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해하고 무엇이라고 판단하는가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자기만의 과정으로 만들 수 있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각자 자신의 방법을 개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포크 수업 방법론

강의 발체

마가레타 레버
(통역 오윤선)

“[...] 지리 과목의 수업 목표는 무엇인가? 답임교사로서 우리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목표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내려온 아이들이 만 7~14세의 발달 시기에 겪는 2차 성장 시기를 슈타이너는 사춘기라고 칭하지 않고 “지구인으로서 성숙되는 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교사의 책임은 지상의 성숙 시기에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동반하는 일입니다. 지구의 성숙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사람이 지상에 정말 도착했음을 말하나요? 그것은 지구상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잘 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아이는 이 시기에 비로소 사람과 공간 사이의 단단한 관계맺음을 이루어냅니다. 지상은 자신이 서 있는 토대입니다. 만 7세부터 사춘기까지 아이는 자신을 땅 위에 정말 건강하고 단단하게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 시기는 사람의 영혼적인 부분이 자신을 땅 위에 직접적이고 단단하게 연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상에 내려와서 이 땅과 단단하게 관계를 맺고 서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과 다릅니다. 땅 위에 굳게 서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런 관

점에서 지리 과목은 아동 발달에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발도르프 교육학에서는 지리학을 그저 보수적인 학문으로 치부하지 않고, 본래 지리학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의미를 깊게 새기게 됩니다. [...]

저는 대학에서 지리학과 불어불문학을 전공했습니다. 한번은 미국 여행을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옆 사람이 저에게 미국에 가서 뭘 하려는지 저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리학을 전공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미국에 대해서 알려주겠다고, 미국의 지리와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등등을 상세하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지리학이 아닌데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부분을 잘 알고 있다는 것도 당연히 지리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안다는 것이 지리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리학의 범위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 봐야 합니다. 한 공간을 잘 둘러보고는 그곳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 말고도 인접한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벗어나서 내 이웃, 나아가 다른 공간에

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형제애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지리학에는 아주 잘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내가 밖에 정신의 차원에서 세상과 연결됨을 지리학을 통해 알게 되면, 이 과목은 아이들을 도덕적인 것과 잘 연결시켜 내적 작용을 일으킵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지리학이 지닌 중요한 가치들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적·정신적인 것이 이 지상에 단단하게 뿌리내리게 합니다. 두 번째는 형제애로 이웃에 대한 긴밀한 관점을 깊게 발달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구체적으로 지리 수업 내용을 이렇게 다루지 못할까요? 지구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입니다. 지구는 사실상 전체가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부분들이 서로 연결된 상태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리 과목에서 우리는 대상을 하나씩 나눠서 바라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리학의 가치는 폄하되어 한쪽으로 흘러갑니다.” [...]

칠판그림 그리기 수업 중에서

강의 발체

뒤르
(통역 김주아)

“1학년용 주의를 사항이 있습니다. 1학년 아이들은 크기를 구별해서 그리지 않으며, 그래서 입체가 드러나지 않는 그림이 됩니다. 1학년 아이들은 아직 가까운 것이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인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시기 아이들은 대부분 중요한 걸 크게 그립니다. 칠판과 멀리 떨어져 앉은 아이들도 잘 보이고 빛(색)이 선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진하게 칠해야 합니다. [...] 2학년 아이들은 여전히 동물 세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 어떤 동물을 그릴 때는 그 동물의 특징과 본질, 본성이 잘 드러나도록 그려야 합니다.

3학년은 나와 밖, 내면의 공간을 강하게 느끼는 시기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특히 사람 손으로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그것을 실제로 경험 하도록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 존재가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세상에 무슨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도록 학생들을 ‘수작업’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

오늘은 동물 중에서 말을 그립니다. 옆으로 누운 8자를 그리고, 머리, 꼬리, 다리의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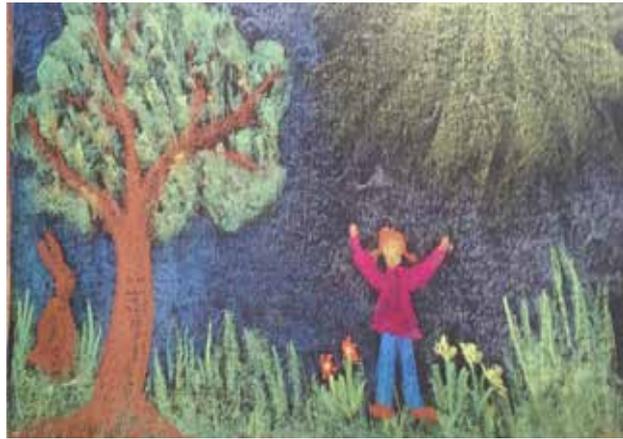
태를 그립니다. [...] 부위별 형태를 상세하거나 무겁게 그리지 않고, 그 부위의 특징만 자연스럽게 그려줍니다. 그림이 간단할수록 아이들은 용기를 내어 함께 그릴 수 있습니다.

저학년을 정리하면,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세상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4학년이 되면 아이는 ‘나’ 자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4학년에서는 교과목 내용들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다룹니다. 예를 들어 동물에 관하여 인간과 연결된 동물학을 배웁니다. 5학년에서는 식물학, 6학년은 광물학과 천문학, 7학년은 영양학, 인간학으로 각 분야를 유기적으로 배웁니다. [...] 그리고 8학년이 되면 인간학으로 다시 돌아와 좀 더 깊이 공부합니다. 골격, 근육, 뼈 등의 형태와 작용, 양극성, 지탱과 보호 등 인체 구조를 알아갑니다. 그런 다음 귀, 눈, 코 등 각 기관을 공부하는데, 이 시기에 아이들은 키가 부쩍 자랍니다.” [...]

5학년 수업으로 갑니다. 에포크 수업 내에서 다른 식물들을 아이들과 수채화로 그려봅니다. 교사는 칠판그림으로 식물을 많이 그립니다. 2018년 1월 아카데미에서는 아이들과 그리는 수채화도 경험했죠. 지난 학기에

그린 민들레 수채화 기법을 기억하시나요? 선생님 수채화로 민들레를 그릴 때, 아이들이 따라 하는 그 과정을 단계별로 함께 작업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칠판그림은 교사 입장에서 그리는 그림입니다. [...]

중요한 점은 꽃을 그릴 때 크레용으로 크게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공책에 크레용의 빛이 발산되는 것을 아이들이 느끼는 것은 중요하니까요. 자세히 세밀하게 그리는 것은 5학년 이후에 기하를 배울 때 해도 충분합니다. 4-5학년 아이들에게는 색의 아름다움이 내면으로 다가가 영혼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 줍니다. [...] 신체 발달을 요약하면, 1-3학년은 사지를 통한 의지 영역이 영향을 받습니다. 4-5학년 시기에는 가슴 부분, 리듬 영역이 발달하고, 6-8학년 시기는 머리 부분, 사고 영역이 발달합니다. [...] 6학년을 위해서 궁궐이나 사찰 등 한국적인 모티브를 그리면 좋습니다. 작년에 한국 여행에서 소나무, 대나무 등을 봤습니다. 호수도 있고, 연못, 정자 등도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리 과목 시간에 아이들이 배우셨지요. 그래서 아래에 물을 그리고, 정자나 궁궐을 그린 후 소나무 등 배경까지 그려봅시다.”



1학년: 원근이 없는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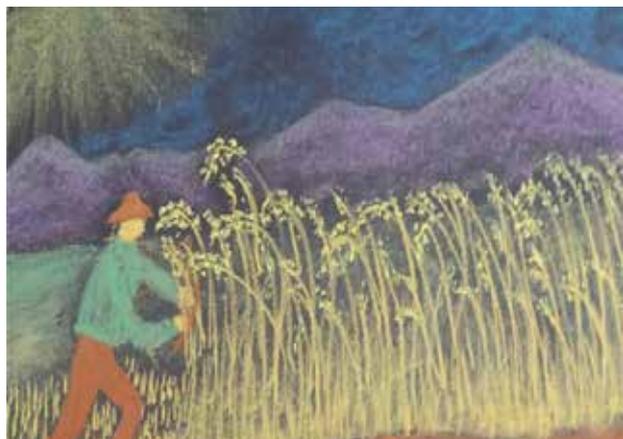
4학년: 동물학



2학년: 우화와 성담



5학년: 식물학



3학년: 수작업 분야의 직업 세계



6학년 한국적인 모티브

따뜻한 배려와 미소는 정말 잊지 못할 추억

후기

정지연 (대전자유발도르프학교 담임교사)

유난히 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올 여름, 서울여성플라자에서 8월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발도르프학교 담임교사 양성과정(이하 발도르프학교 초임교사로서 좀 더 심도 있게 발도르프 교육과정에 대해 공부하고자 이번 학기에 입학신청을 하게 되었다. 수업에는 발도르프학교 교사를 비롯하여 학부모 및 영유아과정을 졸업한 유아교사들까지, 게다가 공교육 혁신교육을 꿈꾸는 선생님들,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발도르프 교육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했다. 이번 양성과정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독일 슈트르가르트 발도르프 사범대학의 협력으로 독일에서 크라코브 선생님과 레버 선생님, 뒤르 선생님까지 발도르프 교육계의 실력 있는 강사진을 모시고 진행되었다. 오전 8시부터 시작한 수업은 크라코브 선생님의 인간학과 교육심리학 수업을 거쳐 레버 선생님의 고학년 지리 수업과 뒤르 선생님의 칠판그림 수업, 그리고 이윤옥 선생님의 합창

수업까지, 인문학 수업부터 예술 수업까지 알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크라코브 선생님의 강의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인간학에 대해 수강생들이 조금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더불어 통역을 맡은 여상훈 선생님께서도 어려운 내용을 함께 풀어나가느라 쉬는 시간까지도 고심하시고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다. 그 덕에 전부는 아닐지라도 조금이나마 인간학에 대해 가닥을 잡고 더 큰 호기심으로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다. 레버 선생님의 강의는 좀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에 대해 많은 부분을 알려주었다. 나는 저학년을 맡아 당장 활용할 기회는 없지만, 고학년 수업을 맡고 계신 선생님들께는 바로 다음 학기에 적용하여 아이들과의 수업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토대가 되었다. 이어 뒤르 선생님의 강의에서 학년별로 아이

들에게 상상력을 꺾을 수 있는 칠판그림을 다양하게 배울 수 있었고, 나아가 수강생 각자의 예술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두할 수 있었다. 종일 이어지는 수업에 몰입해 지칠 만도 한 오후에는 이윤옥 선생님의 합창 수업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긴장도 풀며 한껏 웃을 수 있었다. 일주일간 뻘뻘한 일정이 이어지고 멀리 대전에서부터 서울까지 매일 왕복하느라 비록 몸은 피곤했지만, 초임교사로서 수업에서 아이들과 대면할 때를 생각하면 정말 값진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열띤 수업과 다채로웠던 예술 수업들,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자 노력하시던 교수진과 통역진의 진심어린 모습들이 이제 막 발도르프 교육에 들어선 초임 교사에게는 정말 든든한 버팀목으로 느껴진다. 같이 수업을 들었던 다정하고 따뜻한 선생님들의 배려와 미소도 정말 잊지 못할 추억으로 자리 잡아서, 벌써부터 올 겨울에 돌아올 다음 학기가 기대된다.



"아니 벌써 작별 인사를 하라구요? 여러분의 열정에 감동했습니다! 발도르프 교육운동은 '나'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발도르프 교육 문화는 우리가 꽃피웁니다."

오이리트미 교사 양성과정

오이리트미는 1912년 루돌프 슈타이너가 창안한 동작 예술로 “언어와 음악 속에 살아있는 향조의 힘”을 동작으로 표현하는 예술 활동입니다. 발도르프 학교에서 오이리트미가 필수과목인 이유는 학생들이 오이리트미 동작을 지속적으로 연습함으로써 집중력과 의지력을 기르며 나아가 언어와 음악의 예술성을 체험하는 교육적 효과 때문입니다. 나아가 동작선의 움직임의 공동을 실현하면서 공간 감각과 사회성 발달이 촉진됩니다.

발도르프 교육운동이 질적 양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한국에서 오이리트미를 전공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설립되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오이리트미메움과 발도르프사범대학의 협력으로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는 2017년 서울 오이리트미메움 예술원을 개관했다.

초빙교수진으로 슈투트가르트 오이리트미메움의 미하엘 레버, 하이오 데커, 임동원 선생님과 질버발트 발도르프학교 오이리트미 교사인 한미경 선생님이 참여하고 있다.

총 5년간의 교육과정은 스위스 괴테아눔 예술분과가 정한 기준에 따르며, 소정의 과정을 마친 전공자는 오이리트미 전문교사자격을 얻어 유아교육기관과 학교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다. 2016년 8월 오이리트미 교사양성과정을 위한 예비코스가 마련되었고 2017년, 1월 첫 번째 전문과정이 막을 올렸다.

1기 전문가 과정 (2학년 재학생 16명)

기간 : 7. 23. ~ 8. 12. / 9:00 - 18:30

장소 : 서울 오이리트미메움 예술원 (6층)

음악 오이리트미 : 미하엘 레버 (통역 한미경, 임동원)

언어 오이리트미1 : 하이오 데커 (통역 한미경)

언어 오이리트미2 : 한미경

인지학과 발도르프 교육 : 비르기트 크로머 (통역 한미경)

연습 지도 : 길민

2기 전문가 과정 예비코스 (7명)

기간 : 7. 23. ~ 8. 1. / 9:00 - 18:30

장소 : 인지학센터 (2층)

음악 오이리트미 : 미하엘 레버 (통역 길민, 임동원)

언어 오이리트미1 : 하이오 데커 (통역 한미경)

언어 오이리트미2 : 한미경

연습 지도 : 길민



서울 오이리트미메움 예술원 개관식에서 슈타이너의 '오이리트미메움' 명칭 사용을 허락 받음(2017. 1. 4.).

내 삶의 새로운 길이 열리다 - 생명의 에너지를 변화시키고 확장시켜 주변과 공명하는 작업

후기

정연진 (오이리트미 1기 재학생)



저는 서울 오이리트미메움 예술원의 전문교육과정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입니다. 발도르프 어린이집에 다니는 6살 아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디자인과 영상, 무용 분야에 관심을 갖고 관련 일을 하며 20대를 보냈습니다. 발도르프 교육 관련 책을 읽다가 처음으로 오이리트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땀 직접 공연을 본 적도, 체험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지학센터에서 '오이리트미 전문가과정' 예비학기가 열린다는 소식에,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도해 본 것이 지금 저에게 새로운 길이 되었습니다. 제가 2년간 경험한 오이리트미는 우리가 몸 안에 가지고 있는 생명의 에너지를 변화시키고 확장시켜 주변과 공명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언어 오이리트미'를 배우며 우리를 둘러싼 많은 단어들의 소리가 가지고 있는 원형을 생각해 보고 느끼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성격이 그 대상을 가리키는 낱말 소리

에도 들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때 놀라움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현대의 공연 작업에서는 음악과 움직임의 템포를 다르게 가져가면서 그 안에 비틀어진 새로운 조합을 찾아가는 것이 세련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의 저는 그런 작업 방식에 더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음악을 그대로 움직임으로 보여주는 '음악 오이리트미'가 고전적인 접근처럼 느껴져 크게 흥미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음악 오이리트미를 배우고 경험하며 그 동안 제가 알던 음악은 음악의 내면이 아닌 겉모습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신체적으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몸이 더 가벼워지고 좋아졌습니다. 과거엔 전문가로부터 지도받은 바르게 선 자세가 어색하고 불편했는데 지금은 제 자세가 많이 개선되었고 편안해졌습니다. 발도르프 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서기'가 오이리트미 전문과정을 하며 제 몸에 들어왔습니다. 주

변의 공기를 느끼는 감각도 열리고 있음을 느낍니다.

오이리트미 동작에서 비롯한 주변 공기의 변화는 피부에서 느껴집니다. 저는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외에 몸과 의식의 관계에 집중하여 작업하는 여러 메소드들을 경험해 보았는데, 이것은 제가 여태까지 해 보았던 다른 움직임 과정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이리트미 움직임을 통해 공간 안에 형성되는 공기의 변화를 볼 때에, 언어로는 설명하기 힘든 몽클한 느낌이 제 깊은 곳에 훅 다가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오이리트미 공연에서 관객이 잠을 자는 것도 성공이다. 수면 중에도 오이리트미의 힘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오이리트미는 관객에게 의식의 차원을 넘어서 음악과 시의 언어가 하는 이야기를 공명으로 전달하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2018 오이리트미 예비코스를 마치고 - 내 삶을 돌아보고 나를 세우는 시간

후기

김혜정 (동림자유학교 담임교사 역임)

2년 만에 2기를 위한 예비학기가 2018년 7월 27일부터 8월 8일 사이에 9일간 열렸다. 모인 사람은 모두 7명이었다.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낯선 사람들의 모임이었지만 오이리트미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뜨거웠다. 예비학기는 오이리트미 교과과정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하였지만 삶을 돌아보고 나를 세우는 시간이기도 하였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전망 없이 오이리트미를 좋아하기에 일단 예비학기를 시작하였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단단한 어떤 것이 모두의 내면에 형성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언어 오이리트미 시간에는 3단계 걸음을 시작으로 다양한 걸음을 연습하였고, 4대 원소인 땅, 물, 공기, 불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움직임으로 나타내 보았다. 앞과 뒤, 왼쪽과 오른쪽, 위와 아래 등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방향과 주위의 사람들을 느끼고 함께 호흡하면서 움직이는 활동들이 이어졌다. 조화로

운 8자를 모두 함께 그려나갈 때는 마치 우주의 조화 속에서 떠다니는 행성과도 같은 느낌을 받았다. 언어의 본질적인 성격을 다루는 모음과 자음의 형태를 배우고, 다양한 시에 맞춰 오이리트미를 하였다. 구리봉 연습은 우리 몸을 더욱 깨끗하게 세워 주었고, 작은 동작에도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지 알게 해 주었다. 오후에 한국 사람으로 이미 오이리트미 전문가 길을 걷는 선생님과 함께한 음악 오이리트미는 감동적인 느낌을 전해 주었다. 통역 없이 우리말로 전해 듣는 설명은 더욱 생생한 느낌과 이해를 불러일으켰다. 리듬, 박자, 멜로디, 단조와 장조에 대한 기본 연습을 시작으로 다양한 형태를 음악에 맞춰 표현하였다. 바흐, 쇼팽, 슈만, 헨델, 모차르트, 하이든, 코렐리 등 유명 작곡가들의 음악을 들으며 움직일 때, 내가 음악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몸으로는 움직여지지 않아 우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언젠가 내가 음악이 되는 날을 꿈

꿀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기도 하였다. 특히 오랜 시간 연습했던 쇼팽의 <장송곡>은 삶의 아름다운 순간들과 절망적인 순간들을 회상하며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했다. 또한 죽음의 순간을 상상하고 그 의미를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예비학기가 끝나면서 벌써 가을에 열리는 집중 워크숍을 기다리며 연습 일정도 잡아 놓았다. 무더운 여름날, 오이리트미를 하며 흘렸던 땀과 웃음을 기억한다. 절대로 되지 않을 것 같던 동작도 계속되는 연습에 저절로 가능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선생님들의 칭찬 한마디에 날아갈 듯 기뻐했던 시간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그 자리에 모였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던, 커다란 하나를 위하여 나를 버리고 뛰어든 순간의 느낌이었다. 이제 겨울에 2기가 시작된다. 더 많은 땀이 요구되겠지만 우리는 웃으며 힘차게 그 길로 들어설 것이다.



여름 아카데미 발표회 찬조 출연: 재독 오이리트미스트 길민



"우리는 1기 재학생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음악 소리를 아름다운 동작으로 보여드립니다."

집중 코스



발도르프 부모교육상담사 자격취득과정

국내 영유아 발도르프 교육 전문과정을 졸업한 현장 전문가를 위한 심화코스입니다. '사회의 미래는 성장하는 아이들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슈타이너의 교육론에 공감하여 현장뿐 아니라 가정에서 만나는 교육의 문제 영역을 실제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인지학적 인간학을 공부하며 구체적인 실무 능력을 쌓는 자격과정입니다.

기간 2018. 7. 30.(일) ~ 8. 1.(수)

9:00-18:00 (49명 참석)

장소 여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

교육학과 인간학

마르셀 드 레이브 (통역: 여상훈)

발도르프 교육학의 인간상

인간 본질에 대한 이해

부모 교육론

마르티나 힌츠 (통역: 오윤선)

"교육 파트너"로서 부모 이해하기

학부모와의 협력 작업

대화의 기술

듣기예술

이윤옥

조소예술 체험

손석심

부모상담의 실제

최윤희·홍정애

아이와 부모의 운명적 과제를 존중하는 노력

후기

백미경 (영유아 교사양성과정 1기 졸업항동 발도르프컨더가르텐 대표)



삶의 모든 과정을 교육과 예술로 안내하고 있는 발도르프 교육의 핵심은 만남을 통한 관계맺음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도르프 교육의 실천 현장에서 함께 이 길을 동반해 나아가는 부모의 존재는 교육의 동반자이자 협력자입니다. 사회가 점차 고도로 발전하고 기술문명의 발달로 인간관계가 단절되어 가는 이 시대에, 새롭게 관계의 연결을 시도해 나가려는 발도르프 교육의 이상들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발도르프 부모교육상담사' 과정이 개설되어 기쁜 마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실천되고 있는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부모가 아주 중요한 동반자 역할을 합니다. 즉 '아이와 부모의 운명적인 과제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사와 아이, 부모, 동료 교사, 사적 공간 등이 정신적으로 서로 가까워지도록 노력한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이는 어디에서 왔는가? 아이와 부모의 운명적 과제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가능성을 열어 나가기 위해 어떻게 '사고'해야 하는가? 결국 우리의 입장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등의 순간에 우리는 모든 답을 즉각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열린 질문을 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부모 상담에서 아주 중요한 것에는 한쪽의 정보가 아니라 양쪽의 이야기를 충분히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태도입니다. 또한 대화 시간에 온기를 만들어 서로 내면의 공간을 열어서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 상담을 통해 부모와 교사는 자기 존재와 역할이 완벽하지 않으므로 노력하는 인간의 자세

를 취하는 것,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발도르프 부모상담사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무척 중요하게 다가왔던 내용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도르프 교육의 아름다운 순간들은 이 '고요한 순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곧 예술이고, 예술적인 순간들이 삶과 함께 녹아있는 것을 발도르프 교육 실천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순간들이 바로 이 '고요함' 안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듣기예술교육 워크숍 (서울/담양)

듣기예술교육 아우디오파디 Audiopädie는 인지학을 바탕으로 라인힐트 브라스 교수님이 발도르프 음악 교육의 지평을 넓힌 새로운 영역입니다. 발생학적 관점에서 보면 태아기의 감각기관 중에서 가장 먼저 발달하는 귀는 세상을 듣고 이해하는 도구입니다. 타인에게 귀 기울여 듣고 공감하는 능력이 점점 약해지는 아이들을 치유와 교육에 동반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경험하는 워크숍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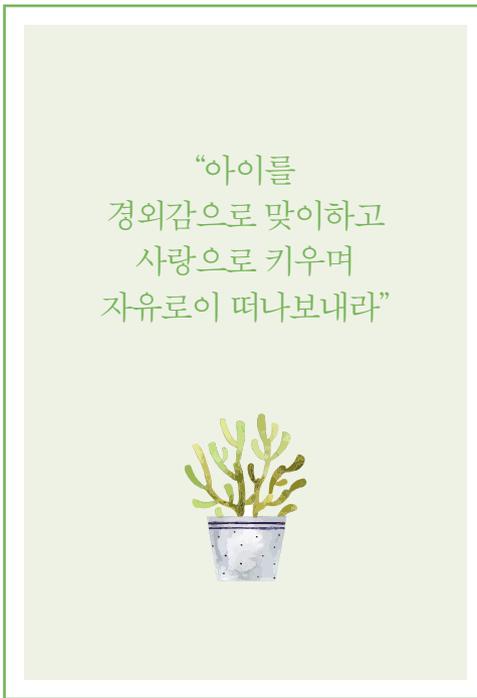
라이힐트 브라스 (통역 이윤옥)

기간 7. 21. ~ 22. 9:00-18:00 (30명 참석)

장소 인지학센터 (마포)

기간 7. 24. ~ 26. 9:00-16:30 (18명 참석)

장소 잇다자유학교 (담양)



담양에서 크나큰 울림을 전합니다

후기

정다운 (담양 잇다자유학교 학부모)

가만히 있어도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히는 여름 날, 2018년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하루 4시간씩 커다란 나무들에 둘러 쌓인 담양

병풍산 자락에 위치한 잇다자유학교에서 아우디오파디 연수가 있었답니다.

아우디오파디?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 요. 뭐라고 정의하기 힘들지만 독일 비텐 발도르프 사범대학 교수를 역임하시고 비텐 듣기교육예술연구소를 설립하신 라인힐트 브라스 선생님께서 다양한 울림과 소리를 가진 악기들을 이용해서 창안하신 듣기예술 수업이라고나 할까요? 음악치료 방법이자 명상을 도울 수도 있으며 음향 공간에서 소리와 사람의 조화를 찾는 수업이라고 하면 약간 이해될 수 있겠지만, 직접 참여해보지 않으면 그 “느낌적인 느낌”을 알기가 매우 어려운 수업이라고 하겠습니

다. 이전에는 선생님께서 제작하신 여러 가지 악기와 자연물을 이용해서 연주해 주시고 듣기만 하거나 이론을 공부하는 수업이었다면, 이번 담양 행사는 달랐습니다. 덩치만 푸른 자연 속 학교에서 열린 수업에서는 잇다학교 학부모, 아기 엄마, 교사, 연주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소리를 들려주고 함께 고요를 만들었어요. 고요 속에 울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놀라운 경험을 함께했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발도르프 교육자로 활동하신 브라스 선생님께서 어른들에게 악기 연주를 가르치시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발도르프학교 아이들은 이렇게 배우고 선생

나의 감성을 채우는 소리를 체험하다

후기

김현숙 (경기도 서정초등학교 교사)

경기도에 있는 혁신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으로 에포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침 리듬활동이 아이들을 깨우고 움직임 욕구를 해소해주며 아이들의 배움에 많은 도움이 됨을 실감한다. 한글과 숫자, 셈하기와 관련된 가벼운 노래들과 활동을 해나가면서, 이 시간을 아이들이 좀 더 내면과 만나고 자연과 깊게 만날 수 있는 노래와 활동들로 채웠으면 하는 마음이 컸다. 이런 고민을 나누다가 주변 선생님들로부터 아우디오파디 연수 소식을 전해 듣고 큰 매력을 느꼈다. 소리와 깊은 만남, 음악 교육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 등이 정말 궁금했다. 주말과 휴일, 학기말이라 몸은 지쳐 있고 중학년을 위한 활동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나의 내면을 채우고 내가 갖는 다양한 경험이 아이들에게도 전해지리라 믿으며 연수를 가게 되었다.

나의 기대는 어긋나지 않았다. 브라스 선생

님의 안내로 하게 된 활동들은 소리를 내면으로 깊게 이끌어 줌을 느꼈다. 다양한 재질의 악기들이 서로 어우러지며 공간을 채우는 경험, 노래와 연결된 악기와 몸의 움직임, 음악의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아이들과 만날 때 이끌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 방법들. 피곤한 주말이 틀 동안의 시간이 지루하지 않게 금방 지나갔다. 그림을 그릴 때와 다르게 소리를 만나는 시간은 나에게 많은 집중력을 요구했고, 나의 감성을 채우면서도 소리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시간들이었다.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들과 좋은 경험을 나누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자아가 보이기도 했다. 아이들도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친구를 만날 수 있겠다 싶었다. 책으로 접했던, 청각이 인지감각이라는 것, 소리를 들으려면 음을 지워나가야 함을 실감하는 시간들이었다. 나에게 이런 경험들이 있었더라!

무엇보다 아름다운 회어라움 공간과 그곳에 있는 다양한 악기들을 만나는 것이 나의 시각을 넓히고 소진된 마음을 채우게 해주었다. 지금도 돌에서 울려 나오는 아름다운 소리, 가늘고 하얀 쇠막대에서 울려 나오는 구슬 같은 소리들이 들리는 듯하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소재를 이용해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악기(소리)들을 다양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또 그 동안 아이들과 나누었던 노래와 활동들을 좀 더 풍성하게 하는 길을 안내

받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오자마자 집에 말려 두었던 소리 껍데기에 구멍을 뚫어 연결하고 방향 때는 주위의 도움을 받아 나무판을 자르고 구멍을 냈다. 이제 개학했으니 이 다양한 울림들을 아이들과 어떻게 나누면 좋을지 머릿속이 분주하다. 행복한 고민이다.

더불어 또 다른 고민도 생겼다. 아이들과 이런 활동을 나누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다양한 소리의 악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해외의 비싼 악기를 계속 주문해서 써야 할까, 아니면 돌이나 나무, 쇠를 다루는 업자를 찾아가서 함께 만들어야 하나. 수도권 외곽에 거주하는 관계로 조금만 차를 타고 나가면 석재소나 목공소 등이 있지만, 주로 건축자재와 관련된 작업이나 석상, 건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음을 맞추고 그것에 맞는 재질을 연마하는데 공을 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나 스스로 이런 곳을 찾아다니며 마음이 생기고 어디를 가든 소리와 관련된 물건들에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는 내 모습이 새롭고 놀랍다. ‘아우디오파디’가 내가 그동안 아이들과 해보지 않았던 활동이어서 내가 충분히 경험해보진 못했지만, ‘아이들이 길을 알려줄 것이다’라는 브라스 선생님의 말을 되새기면서 용기를 내려 한다. 2학기에는 아침 시간의 우리 교실이 좀 더 아름다운 소리로, 다양한 소리로 가득하길 기대해 본다.

님들은 이렇게 수업하시는구나!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말로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끊임없는 격려 속에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고 기다려 주는 것이구나. 그리고 작은 발전이 보인다면 진심으로 기뻐하고 아낌없이 칭찬해 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온 몸으로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비폭력 대화를 오랫동안 연습하고 있다는 한 분이 “이제 뭐가 문제였는지 알겠어요. 대화에서 중요한 경청, 잘 듣기를 이제 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하시는 걸 보고, 이번 듣기예술 수업이 참여한 모두에게 크나큰 울림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담양에서 듣기예술을 체험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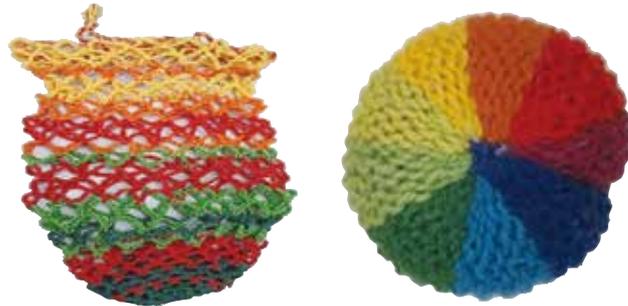
발도르프학교의 수공예

모니카 뒤르 (통역 김하진)

기간 8. 7. ~ 10. 19:30 - 21:20 (참석자 38명)

장소 여성플라자 다목적실

- 아동 발달과 인간학적인 배경
- 학년별 수공예 수업 전개 방법
- 1~3학년 작품 만들기



36년간의 풍부한 경험을 기꺼이 내어주심에 내 손은 감동

후기

한은숙 (인지학센터 수공예 분과 연구원)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의 수공예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학교 수공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아이들이 털실과 바늘을 이용하여 뭘 만든다는 것이 단지 기술적인 면만 아니라 그것을 그 연령대에 작업하는 이유가 당연히 있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풀리지 않은 의문을 오랜 동안 간직했던 기억이 되살아난다. 인지학센터에서 이번 여름학기에 모니카 뒤르 선생님께서 학교 수공예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준비하신다는 말에 무척 반가웠고 기대가 되었다. 각 개인의 발달을 고려하고 인간학에 기초해서 아이의 발달을 돕는 수공예 작업은 무척 멋진 일이다. 작업에 몰두하고 본인

의 노력으로 뭔가를 완성했을 때 성취감과 자신감, 본인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하며 진정한 삶에 대한 적극성을 갖게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우리는 1학년~4학년 수업 과정을 배웠다. 수공예는 손을 능숙하게 만들고 그 능숙함이 우리에게서 사고력을 일으킨다는 설명이 더 명료해졌다.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하나의 고리 다음에 또 다른 고리가 생기고 두 개의 고리가 엮이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갖가지 연결을 통해 무언가가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아이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창조적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 아이들은 대바늘뜨기, 코바늘뜨기를 하게 되는데, 뜨개질은 아이들에게는 멋진 경험이다. 줄였는데 뭔가 생겨나고 코를 놓치면 구멍이 생기고 뭔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코가 빠지면 구멍이 나게 되는데, 그것이 사고와 연결된다. 이것은 나중에 아이들이 사고할 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수공예의 의미도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참석자들은 뒤르 교수님의 설명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매일 저녁 집중하며 작업을 하

다가 “벌써 끝나는 시간이네!”하는 아쉬움의 말과 함께 일어나야만 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눈은 저녁시간의 피곤함도 이겨내고 새로운 발견에 반짝거렸다. 결국에는 4학년의 과제까지는 할 수가 없었다. 내용에 비해서 시간이 짧았다. 겨울학기에 고학년 과정의 수공예를 하기로 했는데, 좀 더 충분한 시간으로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오랜만에 학교 수공예 집중 세미나를 하게 된 만큼,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발도르프학교 수공예 선생님, 방과 후 선생님, 학부모님들께서 참가하셨다. 수공예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서인지 마치 만남의 장소처럼 여겨졌다. 현장에서 하고 있는 각 학년의 과정이 궁금하여 서로 의견, 정보를 나누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각자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 하지만 만나는 시간을 통해 또 다른 발견을 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함을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다. “아이들은 이것을 해야 하니까가 아니라 이 아이의 발달을 돕기 위해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왜”라는 질문에 답을 하며 아이들과 함께 시간들을 엮어가야 할 것이다.

인지학과 예술



기간 8. 9. ~ 8. 11. 9:00 - 18:00 (참석자 15명)

장소 여성플라자 시청각실

마르가레타 레버 (통역 이정희) / 안드레아스 크라코브 (통역 이정희)

- 인지학이란 무엇인가(영혼달력을 중심으로)
- 전 인류의 문제로 등장한 사회적 질문들
- 1879년 시작된 미카엘 시대의 특징
- 악의 인식에 대한 질문-루치퍼와 아리만의 작용

인지학에 대한 깊이 있는 강좌였어요!

예술을 통해 심신 재충전까지

후기

김훈태 (슈타이너사상연구소장)

“인지학이란 과연 무엇인가? 발도르프학교를 그만 두고 연구자의 길을 걷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인지학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어서였다. 궁금했다. 대체 인지학이란 어떤 학문인지, 엄격하게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싶었다. 현대의 학문을 모르거는 인지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에 사회학과 박사과정을 시작했다. 슈타이너의 사회사상에 대한 특별한 관심 때문이기도 했다. 지금은 과학철학이라는 분야를 심화해서 연구하는 중이다. ‘사회학과 과학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지만, 나의 문제의식은 정신세계

를 과학으로 탐구할 수 있고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슈타이너의 관점을 이해하는 데에 가 있다.

과연 정신과학이란 가능한가? 슈타이너의 사상을 과학이라고 불려도 괜찮은가? 다행히도 현대의 과학철학은 기존의 경험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근원세계에 대한 탐구도 과학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아니, 과학이란 경험에서 출발해 근원이 되는 인과적 힘을 찾는 것이라는 데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괴테의 과학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지금, 슈타이너의 인지학 역시 비과학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지학에 대한 깊이 있는 강좌를 듣고 싶어졌다. 오롯이 인지학 그 자체를 깊이 다루는 강의 듣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마침 인지학센터에서 <인지학과 예술> 강좌를 진행한다기에 일찌감치 예약을 하고 숙소도 미리 잡아 두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강좌는 매우 만족스러웠다. 우선 마르가레타 레버 선생님의 “인지학과 영혼달력” 강의는 영혼달력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해주었다. “정신과학이란 정신세계로 가는 것이 누구나 가능함을 입증하는 것입

니다. 믿음이 아닌 사고를 통해서 말이죠.” 슈타이너는 올바른 관찰과 사고를 통해 현상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탐구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영혼달력은 우리가 어떻게 사고해야 하는지를 알려 준다. 우리 인간과 자연은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의식이 겨울에 깨어나고 여름에 잠드는 것처럼, 자연도 겨울에 깨어나고 여름에 잠든다. 그 흐름은 부활절에서 시작해 오순절과 요한 축일을 거치고, 미카엘 축일에서 성탄절로 향하며 순환한다. 여기에서 교차점은 부활절과 미카엘 축일이다.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의 리듬처럼 인간 영혼과 자연은 잠들고 깨어나며, 지상세계와 지하세계를 오간다. 여기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조화이자 균형이다.

레버 선생님은 영혼달력을 읽고 명상하는 작업이 우리의 느낌 영역을 강화해 준다고 말했다. 느낌 영역, 즉 영혼 영역은 정신세계의 힘을 받아들이기 위한 하나의 통로이자, 지상의 힘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이다. 이때 영혼달력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예감(Ahnung)이라고 배웠다. 느낌으로 와 닿기는 하는데 확실하지는 않은 상태, 무언가가 어렵



뜻이 느껴지는 상태가 바로 예감이다. 그렇게 흐릿하지만 어렵풋하게 느껴지고 아는 것이 영혼의 영역이다. 영혼달력에는 예감과 관련된 말이 9번 나온다. 우리는 이 예감을 통해 고차의 자아와의 만남을 연습하는 것이고, 고차의 자아와 연결될 때 우리의 의식은 더욱 명료해진다. 재미있는 건 파우스트도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를 만나며 자신에게 새로운 길이 펼쳐지리라는 걸 예감한다는 사실이다.

안드레아스 크라코브 선생님은 괴테의 작품 <파우스트>를 여러 번 언급하며 인지학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었다.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물질주의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물질주의 과학은 우리의 감각으로 세상을 더욱 예리하게 바라보라고 주문할 뿐, 전체로서 하나인 세상의 정신적 의미에 대해서는 통찰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것을 감각적인 차원으로 환원하는 과학 앞에서 정신은 설 자리가 없다. 다른 한편으로 기존의 교회는 정신세계를 인식적으로 탐구할 수 없다며 오로지 믿음을 강조한다. 인지학은 양극단에서 벗어나, 살아 있는 사고를 통해 정신적인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말한다. “고차 세계로 가는 길은 감추어져 있다. 그것은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만 발견하게 된다. 미로를 헤매듯 긴 길을 참을성 있게

가야 한다.” 슈타이너가 <신비극>을 통해 들려 준 말이다.

인지학의 길은 자아의식을 잃지 않은 채 대상에 대한 살아 있는 사고를 통해 정신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 좁은 오솔길 양편에는 아리만의 힘과 루시퍼의 힘이 넘실거린다. 삶은 한 번뿐이라며 부와 명예를 쟁취하라고 압박하는 것이 아리만이라면, 세상의 현실에서 물러나 봉 뜨게 만드는 것은 루시퍼이다. 아리만과 루시퍼 사이에서 중심을 잡고 균형을 이뤄낸 인류의 대표자, 인류의 본보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크라코브 선생님은 후기 아틀란티스인 우리 시대의 과제가 바로 악의 힘과 마주하여 씨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균형과 평정을 대변하는, 그래서 저울로 상징되기도 하는 미카엘 대천사의 도움을 받아 양극단의 악을 인식해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인 것이다.

레버 선생님과 크라코브 선생님의 이론적 강연을 예술적으로 보완해 준 손석심 선생님의 조소 수업과 이윤옥 선생님의 회화 수업도 무척 훌륭했다. 조소 시간에는 찰흙으로 항아리를 머리에 인 여인을 만들어 보았는데, 내면의 온기와 의지를 끌어내야 하는 작업이었다. 손석심 선생님의 친절한 안내가 있었음에도

섬세한 표현이 잘 되지 않아 애를 먹은 기억이 생생하다. 대체 얼마만의 조소 작업이었는지! 그리고 회화 수업은 개인적으로 처음 경험하는 음악 활동이었다. 편안히 누워서 눈을 감고 악기 연주 소리에 몸을 맡기면 되었다. 금속과 나무 등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악기의 연주와 물 소리를 들으며 자아가 느낌의 물결에 이리저리 떠다니는 듯했다. 조소가 나를 응축해 갔다면 회화 수업은 나를 이완시켜 주었다. 전체적인 수업이 잘 디자인된 느낌이었다.

사흘 동안 레버 선생님과 크라코브 선생님의 강연을 정확하게 통역해 주신 이정희 선생님을 보며 감탄과 함께 저러다 쓰러지시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었다. 강사 선생님들 모두와 함께 이정희 선생님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정말 많은 분의 수고로 편안하게 강연을 듣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한때 수강 인원이 적어서 폐강이 되는 건 아닌지 불안에 떨기도 했는데, 부디 다음 강좌는 수강 인원이 넉넉해서 조기 마감되기를 기도한다. 계절 마다 꼭 들어야 할 완소 강좌이기 때문이다. 사흘 간 함께 했던 참석자 분들을 겨울에 다시 뵙기를 희망한다.

루돌프 슈타이너 어록

루돌프 슈타이너 어록

번역 : 루돌프 슈타이너 전집발간위원회

제목이 따로 없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9세기, 특히 지난 수십년 동안 교육 예술 분야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제시한 것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최선의 의도에 의해 교육제도의 영역에서 가능한 모든 시도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거기에는 사람에 대한 진정한 인식이 빠져 있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15세기 이래로 사실상 모든 분야를 지배해 온 물질주의로 인해 인간 교육에 관한 사고는 사람에 관한 진정한 인식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육을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을 표명했어도, 그것은 늘 그야말로 모래 위에 세우는 성보다 더 심하게 아무런 기초도 없는 계획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삶이 어떠한가 한다는 문제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갖가지 판단에서 교육의 기본 원리들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을 그 전체성에서 이해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상 이전의 생명에서 지상 생명으로 옮겨온 뒤에, 신에 의해서 사람의 본성에 숨겨진 것이 그 사람에게서 발현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근본적으로 이는 일단 추상적으로 던질 수 있는 질문이지만, 인간을 몸, 영혼, 정신을 바탕으로 진정으로 인식해야만 비로소 그 질문에 구체적인 답을 내놓을 수 있게 됩니다.”

루돌프 슈타이너, 발도르프 교육예술. 인간 본성이 중심인 교육, 9-10쪽 (GA311)

명상의 의미와 실제에 관하여

명상을 "신비로운"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가벼이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명상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의미에서 그야말로 완전히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은 우리의 인내와 영혼의 에너지에 속하는 어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명상은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없다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약속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명상을 시작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지금의 생애에서 실제로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행위가 됩니다. 우리 안에는 자유를 지향하는 성향이 늘 있고, 또 실제로 자유의 상당한 부분을 실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편으로는 유전자를 통해 받은 것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 받은 내용에,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휘둘린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유전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인 것을 갑작스레 내던져 버리는 일이 어느 정도까지나 가능할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갑자기 버리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저녁으로 명상을 실천함으로써 초감각적 세계를 들여다보는 법을 조금씩 배운다면, 우리를 지배하던 그것들을 날마다 끊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경험상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커다란 결심으로 명상 생활을 하기로 한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가 얼마 지나지 않아 포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명상에 관한 한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명상이란 근원적으로 자유로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명상에 정성을 다하면,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명상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면, 명상은 그 자체로 영혼이 정성을 다하도록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1922년 8월 20일 강연문 <교육 예술의 정신적, 영혼적 힘> (GA 305)

교사를 위한 명상 1

감각 존재의 모습 속에
정신의 뜻이 살아 있으며,
정신은 지혜의 빛이 되어
내적인 힘을 보이지 않게 담고 있습니다.

고유의 본성인 자아 안에
사람의 의지가 드러나니,
그것은 스스로의 힘에 의한
사고의 발현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우주 지혜가 비추는 빛에 영향을 미치며
자신의 것이 됩니다.

그리하여 그것은 나를 만들어가고
깨달음의 힘들을 찾으며
신적인 높은 차원으로 향합니다.

1919년 9월, 발도르프학교 설립 직후

인지학의 기본 원칙들

1. 인지학은 사람의 본질 안에 깃든 정신을 우주의 정신으로 이끌려는 인식의 길이다. 인지학은 사람의 가슴에서 올라오는 욕구와 감정의 욕구로 세상에 생겨난 것이다. 그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것이 올바른 인지학의 임무이다. 자기 심정에서 구하는 바를 인지학 안에서 찾는 사람만이 인지학을 받아들일 수 있다. 사람이 생명 유지를 위해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듯, 인간의 본성과 세상에 대해 여러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만이 인지학을 탐구할 수 있다.

1924년 2월 17일자 <괴테아눔 소식지> 게재
<인지학의 기본 원칙들> (GA 26)

183. 19세기 중반에 시작된 자연과학의 시대에 사람들의 문화 활동은 점차 자연의 가장 낮은 영역으로 떨어지는 데 그치지 않고 하위의 자연으로 추락한다. 기술이 하위의 자연이 되는 것이다.

1925년 4월 12일자 <괴테아눔 소식지> 게재
<인지학의 기본 원칙들> (GA 26)

184. 사람은 정신을 체험하는 가운데 그 정신을 인식해야 한다. 정신의 인식 안에서 사람은 자신을 초자연의 영역으로 끌어 올리지만, 자연 밑으로 추락한 기술 문명을 사용하는 사람은 하위 자연으로 떨어진다. 그러므로 정신을 인식하는 사람은 그렇게 추락하지 않을 힘을 자기 내면에 지니게 된다.

<인지학의 기본 원칙들> (GA 26)
1925년 4월 12일자 <괴테아눔 소식지> 게재

깨어 있음

우주 정신의 영역 안에
사람의 형상이 있습니다.
우주 영혼의 영역 안에
사람의 생명력이 깬여 있습니다.

수면 상태

영혼의 자유 영역 안에서
사람의 본능적 힘이 쉬고 있습니다.
정신의 태양 영역 안에서
사람의 사유적 힘이 만들어집니다.

1922년 연말에 기록한 메모

식사 기도

지상에 내린 밤에 식물들이 짙고
공기의 힘으로 온갖 풀이 움트며
태양의 힘으로 열매들이 익어갑니다.

그렇듯 영혼은 가슴 속에 짙으며
그렇듯 정신의 힘은 세상의 빛 속에 움트며
그렇듯 사람의 힘은 신의 빛 속에 성숙합니다.

1908/09

옛날 사람이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하며
자신을 우주라고 일컬었을 때,
그로써 그는 자기 존재가
지상에 있지 않음을 뜻했다.

고대 그리스 사람이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하며
자신을 우주로 일컬었을 때,
그는 자기 본성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사람이
자신을 정신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면,
그것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1923년 2월 2일
베를린에서 기록한 메모

오늘날 이 지상의 시간에
사람이 새로이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은 자기 말에 담긴 정신이라는 내용입니다.

영혼과 정신이 말에 담겨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사람이 잠들어 몸을 떠난 동안
그를 정신세계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잠자는 동안 사람이
대천사들과 소통하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대천사들은 말에 담긴 정신을 받아들일 뿐
사람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천사와 소통하지 못하면
사람의 존재는 온통 상처를 입고 맙니다.

1923년 3월 15일
마리 슈타이너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

아침시 저학년 (1~4학년)

태양의 사랑스런 빛은
나를 위해 하루를 밝히고
영혼에 스민 정신의 힘은
사지에 기운을 줍니다.

눈부신 햇빛을 받으며
신이시여, 나는 찬미합니다.

당신이 영혼 안에
자비로이 심어주신 사람의 힘을.
그로써 나는 부지런히 일하고
애써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서 빛과 힘이 나오니
당신에게로 사랑과 고마움을 보냅니다.

1919년 9월



아침시 고학년 (5학년부터)

나는 세상을 봅니다.
그 속에 태양이 빛나고,
별들이 반짝입니다.
돌들이 자리 잡고,
식물들은 살아서 자라나며,
동물들은 느끼며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은 생기 있고,
정신에게 거처를 마련해 줍니다.
나는 영혼을 봅니다.
나의 내면에 영혼이 살아있습니다.

신의 정신은
태양과 영혼의 빛 속에 짜여있습니다.
밖으로는 이 세상 속에,
안으로는 영혼 깊은 곳에.

오, 신의 정신이여, 당신에게,
나는 간절히 바라웁니다.
배우고 일하기 위해
힘과 은총이
내 안에서 생겨나기를.

1919년 9월
<슈타이너 잠언 모음집>(GA 40)에서



특별 행사



루돌프 슈타이너 자서전 출간 기념회

인지학 수용의 선구자 장석길 선생님을 기리며



“기꺼이 행동하며 타인의 뜻을 받아들여 사는 것이 자유인이 따를 삶의 원칙이다”

<자유철학>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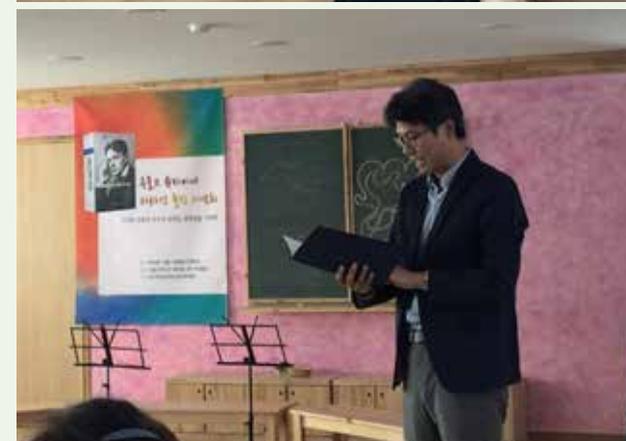


일시 2018년 12월 14일 오후 2시
장소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30 우리빌딩 2층

가을빛이 완연한 10월 14일 일요일 오후, 루돌프 슈타이너 자서전 출간 기념회가 열렸다.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초창기 회원이었던 반가운 얼굴들과 이제 막 발도르프 교육 연구에 심취한 새내기 회원들까지 각자가 품었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특히 장석길 선생님의 누나 장숙자 선생님, 여동생 장숙희 선생님과 독일에 거주하는 조카가 함께 해서 따뜻한 온기를 더할 수 있었다. 김송미 선생님의 사회로 시작한 1부 '실천하는 인지학'에서는 홍성 농부 장구지 선생님의 삶과 부친 발도르프 학교 담임 이상아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발도르프 교육 현장의 생명력을 느끼게 해주었다.

김훈태 선생님의 사회로 시작한 2부에서는 라이어 축하 연주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었다. 장석길 선생님을 추억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분의 삶과 고뇌를 이해할 수 있었다. 장숙자 선생님이 들려주신 “내 동생 장석길” 이야기는 고인이 마치 우리 옆에 앉아 미소 짓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슈타이너의 <평화의 춤> 시낭송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선물해 주었다.

인지학 수용의 선구자 장석길 선생님의 딸과 열정이 담긴 루돌프 슈타이너 자서전 출간이 우리나라 인지학의 학문적 발전과 발도르프 교육의 굳건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장석길 선생님을 추억하며...2부를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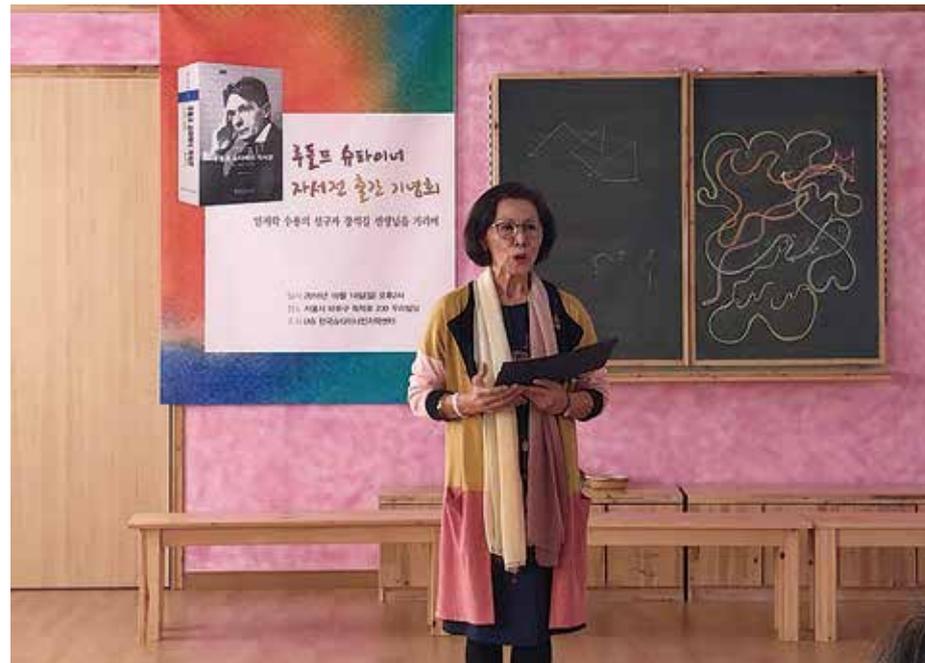
슈타이너전집발간위원장 여상훈
 “실천하는 인지학, 발도르프 교육은 세상을 바꾸는 배움입니다.”

내 동생 장석길



안녕하세요. 저는 장숙자라고 합니다. 고 장석길의 큰 누나입니다. 독일에서 50년간 인지학적 환경 안에 살았습니다. 이정희 선생님께서 동생에 대한 회고를 부탁하셔서 제가 독일에서 동생과 보냈던 4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마도 제 동생에게 그 기간은 새로운 운명의 길이었던 듯합니다.

저는 14살에 고향인 당진을 떠나 수원에서 중, 고등학교를 마쳤고, 그 후 가족에게 작별인사를 할 틈도 없이 독일로 떠났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 동생 석길이의 어린 시절 모습은 몇 번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원에서 고향 당진을 방문하여 보았던 8살 때이고요, 그 후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66년 독일로 떠나던 그해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그때 고향에 내려가 마지막으로 동생을 잠깐 보았는데, 당시 동생 나이는 13살이었습니다. 그 후 10년의 세월이 흐른 뒤 한국을 방문했을 때, 23살 성인이 된 동생과 마주했고, 저는 동생에게 진로를 제안했습니다.



“독일이 교육을 전공한 후 독일로 와서 더 공부하지 않을까?” 하고 물어봤었는데, 그때 그 물음 속엔 저 나름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즈음 저는 루르 지방에 살았습니다. 독일에선 최초로 1969년 말에 설립된 인지학 병원에서 간호학교를 졸업한 후 일하고 있었죠. 인지학병원(Gemeinnütziges Krankenhaus Herdecke)은 인지학을 바탕으로 설립된 병원이었으며, 이 병원은 12명 의사 선생님의 헌신과 봉사로, 그리고 끊임없는 열정의 힘으로 시작되었고, 그 결과를 지켜본 저에게는 큰 감동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뿐 아니라 저는 이즈음에 1년 정도 도르나흐·괴테아눔에서 오이리트미를 경험하였고, 독일에서 두 번째로 설립된 루르 지방의 인지학 사범대학(지금의 비텐 발도르프 사범대학)에 최초의 한국학생으로 등록하여 공부했습니다. 인지학의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 살고 일하면서, 그런 동료들의 뒤에 숨어 있는 힘이

무엇이며 또 그 힘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공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도 인지학적인 활동이 시작된 초기였기에 동양에도 언젠가는 그런 운동이 있게 되리라는 꿈같은 바람이 있었고, 어느 때고 한번은 그날이 오리라고 저는 예감하고 있었죠. 그래서 동생이 독일에서 인지학 공부를 하고 발도르프 교사가 되어 저와 함께 일했으면 하는 은근한 바람으로 그런 제안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하나의 씨앗으로 가슴에 품고 독일로 돌아와 독일 시민권을 받고 1977년 오이리트미 공부를 시작하여 1981년에 디플로마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 후 1991년 동생이 독일로 왔을 때는 1976년 저와의 대화 이후 15년이 지났을 때였죠. 저는 그 당시 결혼하여 3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주부이면서 발도르프 유치원과 발도르프학교의 부모로서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동생의 연령이 만 38세였고 언

어 문제였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저와 멀리 떨어져 다른 지방의 발도르프 사범대학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이 무리라 생각하였습니다. 동생과 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던 중, 지혜가 많으시고 인간관계가 넓으신 슈투트가르트 사범 대학의 크라니히(Kranich)선생님과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분은 동생에게 “당신은 지금까지 머리만 공부를 했는데, 이젠 손과 발을 쓰는 공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제안하셨습니다. 더욱이 언어와 인지학을 짧은 기간에 습득하려면 현장에서 일하며 배우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추천하셨습니다. “특수학교 교사과정이 있습니다. 남부 지방의 아름답고 유서 깊은 보덴제 호수 캠프힐 공동체 마을에 특수교육학파가 있습니다. 누님과 잘 상의하고 또 자신도 숙고해보십시오.” 하시더군요.

저에게 아주 가까운 형제 같은 독일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이미 20년을 인지학을 바탕으로 설립된 특수학교에서 예술 교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 학교 앞 마을에서 1년 넘게 살면서 장애아동들과 저의 아이들이 어울려 놀고 식사도 하는 등 자연스럽게 접촉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저의 운명이 그들과 어떤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교육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뢰렌빌(Föhrenbühl)이라는 캠프힐 마을에 전화를 하고 약속을 잡아 동생과 그곳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뢰렌빌은 “성인들의 산”이라는 뜻인 하일리겐베르크(Heiligenberg)라는 지역에 있었고, 이름마저 아름답더군요. 그곳은 저의 친구가 일하던 특수학교와 다른 큰 마을공동체로 이루어져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고 있었습니다. 직조장, 세탁장, 목공실, 농장 등이 있었습니다. 대략 200

명 가까운 장애인과 그들을 도우며 일하는 사람 200명 정도가 그룹을 지어 한 가족같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엔 물론 의사 선생님이 사시고 학교가 있고 다양한 분야의 예술치료가 있었습니다. 특히 사계절의 축제 때에는 연극이라든가 오이리트미, 합창 등을 공연합니다. 이런 곳에서 장애인과 함께 살며 공부한다는 것은 운명이며, 머리, 가슴, 사지의 수련이라 하겠지요. 그분들과의 상담을 통해 3-4주 동안 실습을 한 뒤에도 서로 결정하자고 하였습니다. 동생은 그곳에 실습생으로 남게 되었고, 저 혼자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죠. 동생은 이미 청년도 아니고 더욱이 동양인 남성으로(그때만 해도 그런 일이 아주 드물었다고 봅니다) 언어나 음식, 건강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준비 없이 실습의 길을 감당해 낼 수 있을까 싶어 저의 마음이 아주 편치 않더군요.

그 후 4주가 지난 어느 여름날 동생이 제 집을 찾아왔을 때 안색은 피곤해 보였으나 4주 전 보다 밝은 기색이기에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답니다. 그 다음 2주를 쉬고 동생은 새로운 운명의 길, 성인들의 산 속에 있는 뢰렌빌로 실습 과정을 위해 떠났습니다.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주말이면 동생은 제가 있는 바이에른(Bayern)으로 와 가사와 육아를 항상 도와주었고, 그래서 친척이 없던 우리 아이들에게 소중한 삼촌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동생을 경계했던 것은 그의 철저한 리듬적인 생활 때문이었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동생이 우리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고 저와 함께 기도를 한 후 감사노래를 부르고 “잘 자라(Gute Nacht)!”를 하면 아이들은 자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생은 잠깐 산책을 한 후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두 시간 동안 슈타이너 전집을 소리 내어 읽더군요. 아이들이 깽 때까지 다시 한 시간 동안 라이어 악기 연습을 했습니다. 생전에 악기

라는 것은 한 번도 손에 들어보지 않았다며 노래까지 동반할 때면 아이들이 웃어도, 동생은 재미있게 연습했죠.

아침식사가 끝나면 설거지를 해주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또는 혼자 빵을 짜내고 산이나 강으로 가는데, 제 생각에는 강보다는 산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때 살던 곳은 뢰렌과 잘츠부르크의 중간으로, 뢰렌에 알프스 산맥이 있고 앞에는 킴제(Chiemsee) 호수가 있는 작은 도시여서 다른 지역 주민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었죠. 아무튼 그는 4년에 걸쳐 그 많은 알프스 외곽의 봉우리들을 한 번쯤은 다 올라갔다고 하며, 슈타이너 전집도 거의 100권을 읽었다고 하더군요. 동생의 졸업장에는 “착실하고 진실한 사람이었고 모든 일을 진심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더욱이 그가 4년에 걸쳐 말아 돌보았던 다운 증후군 장애학생 다니엘(Daniel)을 위해 음식 섭취 방법을 그에 맞게 변화시켜, 정기적으로 일어나 간질 발작이 많이 감소되었다”는 찬사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때, 동생은 저에게 여러 면으로, 특히 인지학 공부에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인지학의 씨앗은 제가 먼저 뿌렸으나, 그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방법이나 능력은 동생이 선배였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좋은 기념회를 마련해 주시고 또 동생 부탁대로 《슈타이너 자서전》과 《인간과 지구의 발달 - 아카샤 기록의 해석》을 발간해주신 인지학센터와 이정희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부디 이 책이 인지학을 공부하시는 여러 분에게 좋은 밑거름이 되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춤”이란 축시 낭송은 독일어로 먼저 하고 이어서 이정희 선생님이 번역하신 한국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의 춤

루돌프 슈타이너

영혼의 소망들이 움트고,
의지의 행동들이 자라나며,
삶의 열매들이 영글어갑니다.

나는 내 운명을 느끼고,
내 운명은 나를 발견합니다.
나는 내 별을 느끼고,
내 별이 나를 발견합니다.
나는 내 목표들을 느끼며,
내 목표들은 나를 발견합니다.

내 영혼과 세상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삶은 내 주위를 더 밝게 하고,
삶은 나에게 더 무거워집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 속에 살아가며,
평화를 사랑하십시오.

번역:루돌프 슈타이너 전집발간위원회

응용 인지학의 현장 소식

나에게 생명역동농법이란? 슈타이너 농법을 실천하는 인지학 농부 이야기

루돌프 슈타이너 자서전 출간 기념회 1부에서 발표

장구지 (홍성 농부)



안녕하세요. 슈타이너 농법을 실천하며 홍성에서 살고 있는 장구지입니다. 저는 농법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전라도 시골 익산에서 자랐지만 농업을 싫어했고 멀리했던 사람입니다. 큰 도시에서 살겠다고 매일같이 노래했어요. 어린 시절이 기억납니다. 알곡이 익기 전에 새들이 와서 쪽쪽 빨아 먹어버리기 때문에 새를 봐야 했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싫었어요. 삶은 감자 한 개와 누룽지 한 조각 들고 새를 보러 가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기회만 되면 외국으로 나가고 싶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한국과는 영원히 빠이빠이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삶이란, 싫은 사람은 또 만나게 마련이고 하기 싫은 일은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운명이고 교육입니다. [...]

2001년 한국에서 발도르프학교가 준비도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다는 것은 '조산'이라고 생각되어 저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은 한 두 사람이 할 수 있지만, 학교는 최소한 3~4명은 되어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과천 학교가 생기는 것을 처음에는 안 도와주려고 했

어요. 하지만 조산인데 어떡하나,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도 키워야하지 않은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교사들과 오이리트미도 하고, 과천에서 인지학 공부도 하면서 학교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아이들이 빨리 8학년, 9학년이 되었어요.

발도르프학교 아이들이 농업 실습을 하지 않고 졸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유학 온 학생들에게 발도르프 교육 과정을 마치고 두 번째 과목으로 농업을 공부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학생들은 "우리 아버지가 전답을 팔아서 대학을 보내고, 유학을 보냈는데, 제가 다시 농업을 한다면 우리 아버지가 통곡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 한국이 아직도 농업에 대한 인식이 낮구나,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농업에 대한 생각은 아주 낮습니다.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놀면 "너희는 커서 농사나 지어라." 하고 말을 합니다. "변갯볼에 콩 볶아먹는다"는 속담을 어느 해 이정희 선생님께서부터 처음 들었을 때 저 말이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는 그 말이 이해가 됩

니다. 지금도 어느 면에서는 굉장히 빨리빨리 하면서, 어느 면에서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의식들이 있어요. [...]

한국의 발도르프학교를 돌보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발도르프학교를 다

“곧 황금색으로
변하겠네요.”



나는 아이들이 농업에 대한 공부도 안하고 졸업하고 학교를 떠나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무조건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홍성에 있는 풀무학교에 가서 도움을 받았어요. 어떻게 씨를 뿌려야 하는지, 농사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를 배웠어요. 그러다 그렇게 싫어하던 농사일을 통해 신비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인지학을 하고 오이리트미를 해서 그럴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매일같이 물을 주면, 일주일 단위로 조금씩 싹이 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신기했어요. 농업에 대한 애착이 하루가 다르게 생기더라고요, 이제는 농업이 그렇게 재미있어요. 감자도 심고, 상추도 하고, 정말 농업은 누구나가 다 해보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에요. 사실 컴퓨터는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곡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

발도르프학교 학생들이 농업 실습을 오면, 아이들에게 유기농도 보고, 관행농업도

보고, 풀무학교도 가서 전공 수업도 보고 오라고 합니다. 좋은 것도 보고, 나쁜 것도 보게 합니다. 그래야 내가 갈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마을 전체를 돌아보게 합니다. 제가 농업강좌 책이 나올 때 같이 읽어보고 그랬는데, 그 책에 보면 슈타이너가 한 말이 있어요. "농업은 혼자 지을 수 없다. 다른 생명과 같이 짓는 것이다." 그러면서 들판에 밭이 있으면 밭가에 들장미도 심고, 새들이 즐겨 와서 노래할 수 있고, 나비들이 즐겨 와서 화분을 옮겨주기도 하면서 같이 농사를 짓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꽃과 나비와 같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농사를 짓고 있다 보면 새들이 오기도 하고, 나비들이 오기도 하면서 같이 짓습니다. 나비가 좋아하는 씨를 외국에서 가져와 심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옆 밭에 일하시는 할머니가 와서는 "당신 여기가 농사를 짓는 거야, 꽃장난을 하는 거야. 이곳에 콩을 심으면 콩이 몇 대는 나올 텐데, 여기 다 둘러서 심으면 몇 말은 나올 것인데." 하면서 야단을 치기에, 혼자 일하기 심심해서 그랬다 했더니 한심해 하셨어요. [...]

우리 집에 학생들이 실습을 오면, 아이들에게 제가 아는 것도 많지 않아서 가르칠 것도 없는데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부담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아이들이 알려 주더군요. "선생님 집에 오면 지렁이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유기농 농장에도 많지 않냐고 물었더니,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는 벌도 많고 나비도 많은데, 다른 곳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학생들이 실습을 오기 전에 미리 많은 준비를 해 놓습니다. 밭에 고랑을 만들어 두면 아이들이 그 밭고랑을 매고 합니다. [...]

아이들에게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습을 위해 아이들이 오면 미리 많은 준비를 열심히 해둡니다. 그리

고 퇴비를 만들 때도 층층이 하라고 합니다. 퇴비를 만들 때마다 층층이 퇴비를 넣고, 부엌에서 나온 쓰레기도 층층이 쌓으라고 합니다. 시루떡을 만들 듯이 층층이 퇴비를 쌓고 채도 넣고 약초 같은 것도 뿌려 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퇴비 만드는 것이 무척 복잡하구나." 하고 말합니다.

또한 췌기풀도 퇴비로 넣어요. 퇴비를 만드는 데 췌기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시금치보다 비타민 C가 더 많아서 전쟁 때 독일 사람들이 이 췌기풀을 뜯어다 밀가루를 풀어 죽을 쑤 먹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 췌기풀은 철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알고 보면 지혜로운 식물이에요. 제가 농업을 안 하려고 하니까 남편이 상추라도 심어 보라고 작은 밭을 하나 만들어 주었어요. 그 옆에 췌기풀이 굉장히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맛있는 음식을 해 먹었는데 언제가 보니 췌기풀이 점점 적어지고 어느 순간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췌기풀이 있는 땅은 흙이 폭신평신했더군요. 다른 땅은 질퍽한데 췌기풀이 있는 땅은 부드럽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옆집 농부한테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췌기풀은 굉장히 인자한 풀이라면서 인자하게 산다고 말을 해주었어요. 췌기풀은 땅이 딱딱하면 그곳에서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고 번식한다고. 그래서 땅이 충분히 좋아지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뿌리를 내리고 그 땅을 좋은 땅으로 바꾼다고 해요. 애네들은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식물이구나, 느꼈답니다. 췌기풀이 자란 곳은 딱딱한 땅이 부드러워지고 만지면 좋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흙을 제가 혀에 조금 대 보았어요. 먹지는 않았는데 기분 나쁜 느낌이 없이 아주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그 땅에다 는 뭘 심어도 다 잘 자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흙을 다른 곳에 뿌리고 했어요.

그리고 슈타이너는 톱풀에 대해서 말했어요. 톱풀은 잎사귀가 톱날처럼 생겼고 하



“
“저기 저쪽이 내 일터유...”
(2018. 9. 26.
홍성 탐방, 김승미 외 6인)
”

안 꽃을 피웁니다. 이 톱풀은 인지학병원에 서 꽃을 꺾어다가 차를 만들어서 암 환자에게 식후에 먹이기도하고 간이 나쁜 사람들에게 마시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식물은 켈틀맨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이나 몰랐더니, 이 톱풀의 뿌리를 가지고 가서 심으라고 하더군요. 씨는 저절로 펼쳐질 것이라고 알려 주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 심었더니 그 톱풀 주위의 땅이 부드러워지더라고요. 못살 땅에 심으면 그 주위가 다 좋아진다고 합니다. 시끄러운 여자들이 있는 곳에 켈틀맨이 등장하면 조용해지듯이 이 톱풀도 그런 뜻에서 켈틀맨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슈타이너가 슈투트가르트에서 강연을 하고 3시간 정도 거리인 스위스 도르나흐로 가는데, 동행한 사람이 말하길, “슈타이너 박사님, 왜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하는데 실천하는 것을 볼 수가 없고, 인지학을 하면 명상을 해야 하는데 별로 명상하는 것 같지도 않는가요?” 그랬더니 슈타이너가 말하길,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먹거리 때문입니다. 독일의 농업이 산업화되면서 농산물이 우리의 배만 채우지

재대로 인간에게 영양분을 전해 주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업이 아주 슬픈 단계에 있습니다. 제 맛을 못 내고, 당근인지 뭘지 구분도 잘 안 되는 단계이지만, 농업이 미래에는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 있게 다가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한국은 더 빨리 온 것 같습니다. 한국은 지금 유전자 조작 식품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합니다. 해마다 천만 톤이 넘는 유전자 조작 식품을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먹거리는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이 말은 많이 하는데 그것을 의지로 옮겨 주는 힘이 없습니다. 의지로 옮기고 실천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힘이 없어서 행동력이 적습니다. 사실 화학비료도 그때만 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 다. 그런데 지금은 무척 나쁘니다. 그리고 원전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전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좁은 한국에 24개가 작동되고 있어요. 이것이 한번 터지면 견잡을 수 없게 됩니다. 원전에서 나온 쓰레기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체르노빌 시대에는 소련 사람들이 그걸 시멘트를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그 쓰레기를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공기 속에는 산소, 탄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질소 등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역동농법으로 농사를 지으면, 우주에 있는 좋은 요소들인 질소, 인, 칼슘 등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런 것들이 많은 식물로 증폭제를 만들면 우주에 있는 요소들이 땅으로 들어오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생명역동농법에는 9가지 중요한 증폭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서 쓰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특허권도 없었어요. 슈타이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곳에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소뿔에 소뿔을 넣어서 만듭니다.

생명역동농법으로 만든 식품이 비싸다고 하지 말고 구입해 주세요. 2 헥타르, 6천평의 농사를 지으면 사람 한 사람 정도 써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저는 연금으로 살아가니 돈이 안 나와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죽고 없어도 젊은이들이 농사를 계속 짓겠다고 하면 소비를 해 주어야 하고 어른들이 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우연히 벌어진 일들 발도르프 학교 이야기

루돌프 슈타이너 자서전
출간 기념회 1부에서 발표

이상아 (부천발도르프학교 8학년 담임교사)



2005년 여름, 우연히 결혼을 했다. 남미로 이민 간 사람이라고, 잘 되면 남미 가서 살 수 있다가에 솔깃해서 나간 자리였다. 세 번 만나고 세 달 만에 결혼해서 동남아시아에서 8년을 살았다. 우연히 아이들 둘을 낳았다. 꼼꼼히 따져보기도 했지만 마침 시기와 여건이 잘 맞아 아이들을 호주 국제학교로 보냈다. 지나친 경쟁도, 학업에 대한 강요도 없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학교였다. 우연히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 결코 원치 않은 상황이었으나 한국어로 수업하는 발도르프학교에 대한 기대가 컸고, 친정집 가까운 곳에 거처를 마련하고 보니 마침 그곳에 있었던 발도르프 어린이집을 거쳐 아이들은 ‘그’ 학교에 가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이가 ‘그’ 학교에 가지 못했다.

2017년 가을, 우연히 부천 발도르프학

교에 갔다.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계속되는 부정적 에너지 끝자락의 목마름이었고, 누군가의 지극히 긍정적인 평가에 그저 한번 둘러보고 싶었을 뿐이었다. 우연히 오고 간 이야기 속에서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났다. 당장 학교에 필요한 과목이 있

“
“우리는 가슴으로
배웁니다”
”



어 수업 시연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만나고 이후 계획을 논의하면서, 나는 우연히 그렇게 발도르프학교 교사가 되었다. 2018년 지금, 나는 부천발도르프학교 8학년 담임교사이자 대표 교사이다. 우연히 내게 온 두 명의 여자 아이들은 점액질과 우울질 가득한 10대 청소년들이다. 1학기에는 8학년 프로젝트를 무사히 마치고 2학기에는 8학년 연극을 준비 중이다. 둘만의 프로젝트가 그러했듯이 둘만의 연극은 오직 그녀들과 나의 딱 지금의 필요와 만족과 발전을 위한, 대체 불가능, 전무후무한 작품이 될 것이다. 어느 때부터인가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었다. 내 의도와 다르게, 하지만 마치 퍼즐 조각처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사건과 사건, 사람과 사람. 이 모든 일들이 과연 우연일까.

남편을 처음 만났던 날, 나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면, 누군가와 결혼해서 살게 된다면 반드시 이 사람이리라는 사실을. 아이들 둘을 만나기 전에 나는 꿈을 꾸었다. 그래서 알고 있었다. 나와는 전혀 다른 둘 이상의 사내아이가 내게 맡겨지리라는 것을. 싱가포르에서 사는 동안, 아이들이 국제학교를 다니는 동안, 나는 알고 있었다. 채울 수 없는 답답함, 공허함의 끝에 물질로 대신할 수 없는 어떤 제3의 영역 같은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작은 규모의 학교, 이제 막 자리잡느라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낯것의 고민들이 날마다 속살 그대로를 드러내며 정면으로 마주하기를 기다리는 학교. 우리는 발도

르프 교육 공동체를 실험 중이다. 살아있는 아름다운 수업을 준비하여 전혀 다른 형태로 구현하고 경제 공동체를 꿈꾸고 내 아이네 아이를 넘어 공동 육아로 서로의 아이들을 길러내고 매 순간 함께 되어감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교육 공동체.

나는 이제 안다. 실은 인지학을 만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지금 이 순간을 위해 단련되고 채워지고 있었음을. 세상의 모든 우연들은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번 생의 필연으로 펼쳐진다는 것을.

나는 오늘도 인지학에서 말하는 사고 훈련을 한다.



여기는 부산입니다 발도르프 현장 이야기

발도르프 교육에 대한 지향과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로 두 학교, 부산사과나무학교와 부산자유발도르프학교가 힘을 모아 2018년 2월, 하나의 학교로 재탄생했습니다. 이 새 학교는 현재 10학년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발도르프 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12년제 종합학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2008년부터 부산 대연동에 터를 잡고 발도르프 교육 공동체에 대한 꿈을 일구며 살고 있습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마을과 소통하며 아이들과 어른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꿈꿉니다. 부산학교는 1학기에 발도르프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체험의 날'을, 2학기에는 '입학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또한 비정기적으로 국제 특강, 바자회 등을 열기도 합니다.

“

자유롭고 건강한 영혼, 살아 숨 쉬는 지성,
조화로운 예술 감각과 삶의 균형 감각을 바탕으로
아이들과 어른이 함께 성장하는 곳.

2018년 현재

97명의 아이들과 70 가정, 26명의 교사가 함께
건강한 발도르프 교육을 실천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



부산

무지개 발도르프 킨더가르텐

부산 남구에 위치한 무지개 발도르프 킨더가르텐은 2018년 3월, 12가정의 마음이 모여 시작되었습니다. 킨더가르텐 운영은 부모들에게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간절한 바람과 서로에 대한 의지로 준비부터 지금까지 좌충우돌(?)하면서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헌신적인 두 분의 선생님과 12가정의 공동 운영으로 아이들도 자라고 부모와 교사들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무지개 킨더는 일곱 빛깔 무지개처럼 자신의 빛깔과 공동체에서의 조화로운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지개 킨더가르텐은 발도르프 교육의 기본 철학인 전인적인 인간교육을 지향하고 실천하는 유아교육기관으로, 유아들이 자연

스럽게 발달하고 따뜻한 감성을 갖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이들의 발달에 이로운 친환경, 유기농 먹거리로 건강하고 치유적인 영양을 공급합니다. 또한 양모, 펠트, 밀랍, 수채 물감 등 천연 재료를 사용한 예술 활동을 통해 섬세하고 풍성하게 배려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도록 돕습니다.

부산

자유 발도르프 킨더가르텐

저희는 2012년 4명의 원생으로 시작했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당연히 재정, 운영, 원생 부족 등의 어려움이 많았지만, 서툰 부모들이 힘을 모아 회의를 거듭하고 교육공동체로서 건강하게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며

지금의 편안하고 아늑한 발도르프 교육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14가정의 구성원들이 몸담고 있습니다. 매년 가을엔 엄마들의 솜씨를 뽐내며 킨더가르텐의 문을 활짝 여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엔 한 해를 마무리하며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등불을 들고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등불축제가 있습니다. 항상 교육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놓지 않으려 부모사랑방이라는 모임을 매달 가지고 있으며, 자발적인 참여로 발도르프 관련 책읽기 모임과 선생님을 중심으로 인형 만들기 소모임 등이 있습니다. 튼튼한 교사회와 든든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바라보며 발도르프 유아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발도르프 교육을 실천하는 기관인 저희 부산 자유 발도르프 킨더가르텐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베네딕투스:
진리의 길들은 영겨있다네.
미로를 인내하며 걷는 사람만이
올바른 길을 찾아낼 수 있지.”

루돌프 슈타이너 : “신비극-영혼의 시험”중에서

부산 발도르프 여름 연수를 마치고 뒷담화 작성: 부산발도르프학교 학부모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에서는 부산발도르프학교의 협력으로 독일 교수님 크라코브(통역 여상훈), 레버(이정희), 뒤르(신영주)와 오이리트미스트 한미경 선생님을 모시고 “발도르프 교육예술의 이해” 국제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울산, 포항 등 영남권에서 모인 수강생 50여명이 더위도 잊고 열정을 불태웠는데, 부산발도르프학교의 학부모 안소희님과 짧은 뒤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인지학센터의 강좌가 개설되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올해 사과나무학교와 부산자유발도르프학교가 하나의 학교로 새롭게 출발했어요. 그 출발을 인지학센터에서 응원해주는 의미도 있고, 지금이 부산 지역 발도르프 교육이 한 단계 성숙할 시점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부산발도르프학교 입장에서는 이번 연수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니나요?

인지학센터의 연수가 부산에서 이루어진다는 건 체계는 특별함 이상이지요. 정말 감격스런 일이에요! 저희 학교가 항상 받기만

했는데 이제 저희도 무엇을 나눠드릴 수 있으니까, 그 만큼 자랐다는 얘기잖아요.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어엿한 모습이라니 자랑스럽고 뿌듯하답니다.

연수에 대한 이야기 좀 들려 주세요.

10년 가까이 발도르프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있지만 발도르프 교육을 깊이 있게 접중적으로 배운 시간이 없었어요.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 그때그때 필요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이번 강좌는 발달 단계, 교수 방법, 오이리트미, 조직 운영까지 발도르프 교육을 한눈에 바라보는 입문 과정이라 제 눈높이에 딱 맞았죠. 특히 모든 강좌가 인지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풀어나갔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강좌들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었죠. 다채로우면서도 깊이는 깊어지는 강좌들을 듣는 동안 “교육예술”이라는 낯선 단어가 탁! 이해되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일까요?

어떤 말씀은 죽비로 한 대 맞은 것 같고, 어떤 눈빛은 따뜻한 위로 같고, 어떤 손짓은 닦고 싶은 모형을 찾은 것 같고, 그랬어요. 선생님들 미소가 너무 온화하고 담백한 거예요. 오랜 시간의 경험이 쌓여 만들어진 아름다운 모습. 저희 같은 늙스구레한 어른들을 단번에 어리광 피우는 학생들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지금도 선생님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마음이 벅차요.

말도 안 통하는 외국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셨는데 잘 소통이 되시던가요?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저는 왜 굳이 멀리서 외국 선생님들을 모셔 와서 연수를 진행해야 하나, 말도 안 통하고 정서도 달라서 오히려 한계가 더 많을 텐데, 하는 의문을 갖고 있었거든요. 비용도 많이 들고 품도 많이 드니 요즘 같이 인터넷 강의를 활발한 시대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수많은 좌절과 도전의 시간을 보낸 사람만이 뿜어내는 기운을 마우스가

전해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 두 손을 잡고 눈을 마주쳐야 느낄 수 있는 서로의 온기를 모니터가 전할 수는 없겠죠. 교육은 실제에서 일어난다는 것. 삶과 같다는 것을 잠시 잊었던 것 같아요.

연수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은 어떠세요?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잊어버리는 시간이 교육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하하하!

연수의 폭풍 감동을 잠시 잊고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그 이전의 나와 이후의 나는 달라요. 자기 스스로의 자유를 위해 자기 스스로를 교육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것은 발도르프학교에 다니는 내 아이의 목표만은 아니니까요.

부산에서 귀한 강의를 펼쳐 주신 슈타이너인지학센터 여러분들과 부산발도르프 학교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발도르프 열기가
역수로 뜨겁습니다!”

내부 강좌 이모저모



내부 강좌 이모저모

나임발도르프 평생교육원 :환급과정 ABCD



2018년 나임발도르프평생교육원은 영유아 보육 전문가가 현장에서 아이들과 생활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과정은 영유아 보육 현장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위탁 교육(이하 환급과정)으로, 교육비가 100% 환급됩니다. 또한 이 과정의 수료자에게는 국제 발도르프 교육 예술가 3급 자격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현재 환급과정은 A, B, C, D 총 4개의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A 과정은 초보자들이 발도르프 영유아 현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 참관을 포함하여 7주 48시간 과정입니다.

B 과정은 토요일 3주 21시간의 짧은 시간에 영유아 교사들에게 필요한 예술 작업을 경험하는 과정으로 4회차까지 진행되었으며, 67명

의 교육생을 배출하였습니다.

특히 영아교사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21시간으로 구성된 **C 과정**은 5회차까지 진행되어 100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습니다.

D 과정에서는 발도르프 현장에서 매일 아이들과 함께 부르는 노래, 손 유희, 동화 등을 포함하여 월리듬(월간계획안)의 핵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으며, 27명의 교육생이 11월 17일 마지막 수업을 하게 됩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총 200명 이상의 교육생이 나임발도르프평생교육원에서 마련한 강좌에 참여해 주었습니다. 모든 교육생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도 발도르프 교육 운동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습식수채화



2018년 2월부터 10월 현재까지 손석심 선생님의 지도 아래 발도르프 예술 강좌 '습식수채화' 수업이 열렸습니다. 주말 강좌와 평일 오전, 오후 등 다양한 시간대에 수업이 진행되어 교육생들이 시간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발도르프 교육과 치유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발도르프 미술의 특징, 습식 수채화, 밀랍크레용 그리기 등 아이들에게 적용 가능한 방법들을 가지고 내적 성장을 돕는 예술 작업을 하였습니다.

발도르프 예술공예강사 자격과정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에서 2018년 3월31일(토)부터 5월 12일(토)까지 한은숙 선생님의 지도 아래 발도르프 예술공예강사 자격 <3급 과정>, 그리고 8월 25일(토)부터 10월 27일(토)까지는 발도르프 예술공예강사 자격 <2급 과정>이 열렸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총 3주와 6주에 걸쳐 평소 발도르프 수공예에 관심과 경험이 있는 분들이 참여 하였습니다. 이 수업은 민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으로서, 이론 수업과 실기 수업으로 3주간 또는 6주간으로 진행되고, 교육을 수료하고 별도로 자격증 신청을 하시면 자격 기준이 채워진 경우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수공예 : 수준별 발도르프 인형 만들기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한은숙 선생님의 지도 아래 발도르프 예술 강좌 "수공예 인형 만들기" 수업이 열렸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눠 총 7주로 진행되었습니다. 발도르프 킨더가르텐 원장님들과 발도르프 인형 만들기에 관심 있는 학부모

와 일반인 등 많은 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상상의 힘, 성장의 힘을 가질 수 있는 놀잇감을 만드는 작업을 초급(따뜻한 아이 만들기), 중급(내 안에 행복 아이 만들기), 고급(나를 닮은 아이 만들기) 등 수준별로 진행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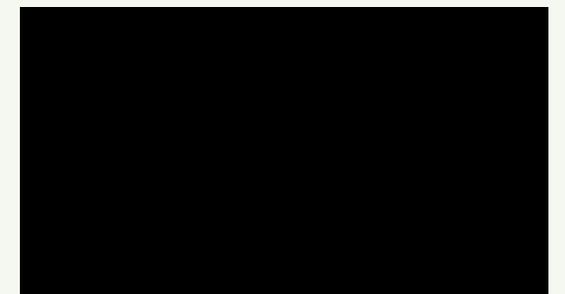
오이리트미



3월15일(목)부터 5월17일(목)까지 신승혜 선생님의 지도 아래 예술 강좌 "오이리트미 - 오이 리트미로 들려주는 이야기" 수업이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20분부터 12시까지, 총 8주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발도르프 교사와 발도르프 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 9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이리트미의 기초 내용, 언어 오이리트미의 몸짓, 이야기 듣기와 들려주기에 대해 배우고, 각자 본인의 이야기를 오이리트미로 표현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업일에는 교육생들의 지인들을 초대하여 작은 발표회를 열었고, 초대받은 손님들은 교육생들의 진심이 담긴 움직임에 깊은 감동을 받고 모두가 함께 발표회를 담은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독일어 공부



2018년 9월 4일(화)부터 이정희 선생님과 여상훈 선생님의 지도 아래 독일어 A반이 열렸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총 4주씩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이어갑니다. 어렵다는 독일어를 기초 문법과 듣기, 말하기 중심으로 쉽게, 낯설지 않게 배울 수 있는 "Top down" 교수방법으로 배우므로 언제든지 재출발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발도르프 교육학과 슈타이너 인지학에 담긴 뜻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고 독일어를 독학하다가 중단하신 분, 이미 진입했다가 쉬고 계신 분에게는 심기일전의 기회입니다.

"Übung macht den Meister!"

문의: 02 832 0523 인지학센터 정지유

연구 소모임

발도르프 현장 연구 그룹



발도르프 현장 연구 모임은 영유아 교육예술가 과정을 졸업한 원장, 교사들로 구성된 자발적인 스터디 모임입니다. 발도르프 현장에서 안고 있는 각자의 고민들을 풀어내어 서로의 의견을 나눕니다. 월 1회 책읽기 모임을 통해 졸업 후에도 센터에서 하는 교육 외에 자체 재교육 시간을 만들어 자기연마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책읽기뿐 아니라 손 유희, 라이젠, 수공예 등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을 공유하거나 전달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이윤옥 강사님을 초빙하여 아уди오판디 연수를 하였고, 구성원들은 열린 마음으로 자신이 속한 현장을 오픈하고 타기관을 견학했습니다. (담양, 부산, 바람아래, 큰다우리 탐방)

치유를 위한 만남 인지학 모임 - 새로운 별을 찾아서



“책에 한 번 던진 시선은
삶 속으로 한 번 던진 시선과 같으니,
그 시선은 정신에 제 모습을 줄 수 있다.”
- 루돌프 슈타이너 1907. 01. 24. 독일 베를린

2013년 12월 첫 만남 이후 현재 2018년 10월 마흔 번째 만남이 이어집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인지학을 바탕으로 한 삶과 자신을 위한 치유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각기 다른 경험과 지혜를 나눕니다. 무엇보다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 만남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며 책을 통독하고 이에 대한 견해를 자유롭게 펼칩니다. 모두가 선생님이고 모두가 학생입니다. 슈타이너 전집 《특수 교육학 강의》《인지학》《정신과학에서 바라 본 아동교육》《인간과 지구의 발달》 이렇게 4권을 함께 읽으며 진지해지기도 하고 웃기도 울기도 하는 시간 속에 함께 치유되고 더불어 성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고 책만 읽었던 것은 아닙니다. 뭔가 부족하다 싶을 때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교수님들과 함께 예술 작업을 통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소정의 참가비를 모아 인지학 보급에 힘을 보태고자 한국인지학출판사에 후원했습니다. 이 모임에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치유를 위해 '누군가' 새로운 별을 찾지만 점차 그 '누구'는 '나'로 바뀌고, 새로운 별을 찾는 일은 결국 '나'를 찾는 것입니다. 2019년에는 '나의 별'을 찾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기를 바랍니다.

빛나는 2019, 여럿이 함께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 인지학센터를 만나다

이창미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센터장)



2019년은 독일의 남부 도시 슈투트가르트에 발도르프학교가 세워진 후 100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고, 1999년 '발도르프 교육연구회'라는 소모임으로 시작한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인지학센터로 명함)"가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에 인지학과 발도르프 교육이 뿌리내리기를 바라는 헌신적인 노력과 열망이 지금 인지학센터의 모습으로 그 빛을 발하고 있어 큰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유래 없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한국 사회는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과 혼란을 주지만, 우리 사회에 "발도르프 교육"이 살아 있어 치유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따뜻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2019년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는 "발도르프

교육의 빛을 발한다" 라는 사명을 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움직이는 '발도르프 교육 소사이어티'가 서로 협력하여 우리 사회에 '새로운 교육 문화'를 만들어내는 데 그 역량을 모아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2019년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는 네 가지 중요한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첫째 '건강한 발도르프 교사들을 양성하는 일', 둘째 '발도르프 교육 현장을 지원하고 교류를 강화하는 일', 셋째 '슈타이너 전집에 관한 연구와 출판 활동을 활성화하는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오이리트메움 예술원 운영을 내실화 하는 일'입니다.

“인지학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건강한 발도르프 교사를 양성하는 일

- 노동부 환급과정으로 이루어지는 '발도르프 영유아 교사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보다 전문화하고 다양화하여 일반 영유아 보육 현장의 교사들이 발도르프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넓히고자 합니다.

- 예비교사, 부모, 일반인을 위해 센터 내부 강좌를 '국가공인 민간자격증'(국제발도르프 교육예술가 자격, 발도르프 예술공예강사 자격과 연계하여 발도르프 교육문화를 더욱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매년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도르프 사범대학과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국제 교사 아카데미 과정은 교사 양성 연수생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을 위한 심화과정으로, 부모 교육상담사 과정, 발도르프 예술치유 과정(예정), 수공예 전문가 과정(예정)등을 신설

또는 강화하여 발도르프 현장교사들의 전문적 역량을 높이고자 합니다.

발도르프 교육 현장을 지원하고 교류를 강화하는 일

발도르프 교육 현장은 생명체로서 생동감 있게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그 뒷받침을 위해 인지학센터는 영유아 교육기관과 발도르프학교 현장과의 MOU를 통해 교육 현장과의 교류를 강화해갈 예정입니다. 특히 발도르프 영유아기관과 학교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재정, 교육 과정, 교사 수급, 학생 모집 등 개별학교 차원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공유하고 다양한 사회적 연대를 통해 발도르프 현장의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는데 힘과 정성을 모으고자 합니다.

루돌프 슈타이너 전집에 관한 연구와 출판 활동을 활성화하는 일

현재까지 쉬지 않고 이루어져 온 슈타이너 전집의 연구와 번역, 출판 등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발도르프 교육 운동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내리라 확신합니다. 특별히 루돌프 슈타이너와 인지학에 대한 대중적 이해를 넓히고 발도르프 교육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학문적·실천적으로 정립해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2017/18년에 출간된 i) 《인간과 지구의 발달》, ii) 《루돌프 슈타이너 자서전》, iii) 《철학·우주론·종교》에 이어 2018/19년에는 iv) 《신비적 사실로서의 그리스도교》, v) 《비밀학 개요》 등을 출간할 예정이고, 2019년도에는 《신체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영혼적·정신적 바탕》, 《피테 세계관의 인식론적 토대》, 《영혼이라는 수수께끼》 등의 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람 영혼이 반영되어
전체 공동체가 생기고
그 공동체 안에
각자 영혼의 힘이 살아 있을 때만이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루돌프 슈타이너 (1920)

또한 발도르프 교육 100주년을 기념하여 현장 교사와 부모를 위한 교육 도서들(《발도르프 성교육》외 4권)도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슈타이너 전집에 관한 연구와 출판은 발도르프 교육의 인지학적 토대를 구축하는 핵심적인 사업이며 동시에 발도르프 교육 운동을 깊고 넓게 전개하는 동력이므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서울 오이리트메움 예술원 운영을
내실화 하는 일

“발도르프 교육의 꽃”으로 불리는 오이리트미를 지도할 수 있는 전문교사 양성기관인 서울 오이리트메움 예술원이 2017년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예술원이 출범한 지 2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19년 2기 연수생들이 선발되면 예술원은 한층 더 아름답고 안정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에 걸맞게 2019년에는 재정과 교육 행

정 등에서 단단한 운영의 틀을 이루어 아름다운 동작예술가로서 오이리트미 전문교사 배출을 기대해 봅니다.

“현재 속에서 미래를, 물질 속에서 정신을, 지상의 삶 속에서 정신적 존재인 아이들을 기르고 가르치는” 발도르프 교육학을 우리 사회에 실현하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는 2019년 여러분과 함께 이 일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지학센터 사무국에 오시면 발도르프 교육에 관해 무엇이든 도와드립니다.”
(왼쪽부터 장주현,이주아,백미경,김송미,이창미,한은 숙,이정희,정지유,한교숙)



루돌프 슈타이너 전집출간위원회



인지학 출판 프로젝트 2025



2016년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는 발도르프 교육교재와 슈타이너전집 출간을 위해서 한국 인지학출판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발도르프 교육 운동의 질적 향상을 열망하는 여러분의 요청에 따라 슈타이너 타계 100주년이 되는 2025년까지 방대한 전집(GA) 354권 중에서 우리에게 긴요한 자료부터 번역, 출판하자는 뜻이 모여져 “인지학 출판 프로젝트 2025”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 전집

출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출판 기금 마련과 자료 선정을 돕고 출간물의 보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집출간위원회는 발도르프 교육의 확산과 인지학 정신문화 운동에 공감하며 적극 동참하실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역과 출판 계획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http://steinercenter.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지학과 발도르프 교육을 더 많은 분들과 더 깊이 나누기 위한 프로젝트에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신한은행 100 031 710055 인지학출판사 *1구좌 10만원 신한은행

동반자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2016-2018년 현재)

강자경 권영완 김꽃님 김미서 김백기 김세한 김윤희 김정임 김태희 김훈태 M.레버 D.모로 박용욱 박춘신 석진미 손석심 송광수 신동춘 신미현 신영주 안소희 안미순 오경희 오해년 오화남 윤정원 윤정원 이기림 이미정 이상윤 이소영 이소운 이은희 이정희 이정희 이지영 이진우 이창미 임지영 정다운 정다운 최분희 하건호 하주현 한미경 한은숙 홍울문 황인화

(주)한국벨레다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나임발도르프평생교육원
강서발도르프킨더가르텐햇빛
대전자유발도르프학교(특강) 마리아의종어린이집(특강)
미래숲유치원 발도르프유아교육동문회
부산자유발도르프학교 부천자유발도르프학교
서울발도르프연구회 인지학센터치유교육소모임
잇다자유학교 향동발도르프킨더가르텐

2017/18 출간 신간 소개



발달 단계의 특성에 기초한 교육 발도르프 아동교육

루돌프 슈타이너 지음 / 12,000원
발행 썬크스마트

발도르프 교육론은 자유로운 생각, 자발적인 표현과 사고 안에서 주체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교육 철학이다. 이 책은 창의 인성 교육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훌륭한 교육 지침서가 될 것이다.

-박수찬(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발도르프 교육예술

루돌프 슈타이너 지음 / 17,000원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이 책은 런던에서 발도르프학교를 모델로 하는 초등학교 설립이 결정되었을 때 그곳 초대 교사진을 위해 이루어진 강연을 기록한 것입니다. 슈타이너 박사가 생전에 제공한 마지막 교육학 강좌로 주목 받는 이 자료를 통해 우리는 인간 본성을 중시한 발도르프 교육예술의 정수와 여러 교과목의 혁신적 교수방법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과 지구의 발달

아카샤 기록의 해석

루돌프 슈타이너 지음 / 장석길, 루돌프 슈타이너 전집발간위원회 옮김 / 25,000원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우주와 인류가 걸은 역사의 본질은 무엇일까? “아카샤”(우주 만물)에 새겨진 생성과 발달의 흔적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인간과 지구의 발달을 설명하는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지학 논집 <아카샤 기록으로부터>의 한국어 초역본.



인지학 영혼달력

루돌프 슈타이너 명상시 52편

루돌프 슈타이너 지음 / 8,000원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발도르프 교육과 인지학의 창시자인 저자가 봄에 접어드는 4월 첫째 주를 시작으로 1년 52주, 52개의 잠언을 모아 엮은 책입니다. 계절의 흐름에 따른 우주 순환과 자기 내면의 변화, 그리고 그 사이의 의미 가득한 연결을 생생한 이미지로 그려냈습니다.



루돌프 슈타이너 자서전

내 인생의 발자취

루돌프 슈타이너 지음 / 장석길, 루돌프 슈타이너 전집발간위원회 옮김 / 35,000원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발도르프 교육학의 창시자, 인지학 설계자가 육성으로 들려주는 깨우침의 기록이자 고백록.



철학·우주론·종교

인지학에서 바라본 세 영역

루돌프 슈타이너 지음 / 루돌프 슈타이너 전집발간위원회 옮김 / 13,000원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뜨거운 응원



든든 버팀목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는 2000년 발족하여 2008년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기관회원, 개인 회원 회비, 든든 버팀목 후원금과 교육비로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나눔을 실천해 주신 버팀목 후원회원님들 고맙습니다!

기관 회원

강남발도르프킨더가르텐(서울 강남구) 강서발도르프킨더가르텐햇빛(서울 강서구) 향동발도르프킨더교육원(서울 구로구) 금호어린이집(경북 영천) 또래숲속학교(수원 팔달구) 바람아래발도르프킨더가르텐(서울 성북구) 별빛어린이집(서울 용산구) 삼성발도르프어린이집(인천 남동구) 새움유치원(서울 송파구) 우림별빛어린이집(서울 용산구) 자연발도르프유치원(인천 남동구) 자연어린이집(서울 용산구) 큰다우리발도르프어린이집(서울 구로구) 한나어린이집(충남 서산시)

개인 회원, 버팀목 후원자 (CMS)

강성수 강아미 강윤숙 강은희 강자경 강환욱 강효은 고미숙 고민아 고병애 고영희 고혜경 곽시내 곽해정 곽행득 구나래 권수자 권연주 권영완 권현정 길종각 김갑식 김경주 김경화 김계연 김광선 김근화 김길섭 김꽃님 김나래 김나현 김남숙 김다혜 김덕윤 김도형 김동욱 김동중 김미미 김미서 김미옥 김미정 김미현 김민영 김병철 김보라 김보민 김선아 김선주 김선집 김성숙 김세환 김세훈 김승미 김숙경 김솔기 김영미 김영미 김영선 김영숙 김영인 김용원 김윤미 김윤희 김윤희 김은숙 김은실 김은영 김은정 김은희 김일선 김정순 김정연 김정임 김정희 김종욱 김중현 김주선 김지미 김지숙 김지영 김지은 김진희 김천숙 김철순 김태옥 김하나 김해련 김현경 김현자 김현정 김현주 김혜원 김혜전 김희연 김희정 김희준 나명아 남가희 남미영 남영순 남옥민 남주현 노재민 노지원 노택균 동지영 류광록 류명숙

류미리 문소영 문영희 민영숙 박동진 박모란 박미숙 박복실 박상연 박선미 박선영 박성숙 박세정 박소영 박수경 박승이 박영호 박용욱 박은영 박은혜 박재용 박정열 박정은 박지원 박철완 박필용 박향연 박현선 박현숙 박현정 박현철 박혜경 박혜영 박홍빈 박희정 배숙경 백미희 백선미 백수명 백승미 백승주 변명희 서경희 서미정 서승미 서예지 서유임 서지희 석은녕 선우숙 설하영 손명희 손민정 손병숙 손석심 손옥진 송경수 송광수 송정은 신미현 신소영 신승혜 신영주 신지영 신현선 신효진 심기성 심은영 안만순 안명희 안병은 안봉균 안지은 안형주 안희정 양경미 양영주 양현정 여민정 연태순 오금희 오미진 오미희 오유진 오윤선 오지은 오해년 오현숙 오화남 용소연 우수현 우영희 위지선 유미진 유병현 유상영 유선영 유정숙 유정숙 유주연 윤보경 윤서영 윤소영 윤양순 윤양순 윤영아 윤정원 윤진숙 윤효원 이강두 이건희 이경미 이경옥 이경현 이남순 이대형 이동열 이동화 이미구 이미란 이미란 이미숙 이민아 이민영 이보라 이상아 이상철 이서경 이석미 이선경 이선주 이세영 이소영 이소윤 이소현 이수영 이수은 이연정 이연희 이연희 이연선 이영숙 이예빈 이유선 이윤정 이은경 이은경 이은경 이은옥 이은정 이은정 이은주 이은주 이은혜 이재현 이재희 이정미 이정숙 이정자 이정현 이정희 이주영 이준우 이지영 이지은 이진우 이창미 이학희 이현주 이현주 이현주 이현주 이현희 이혜승 이혜연 이혜정 이화연 이환웅 이희정 임기홍 임덕희 임명숙 임숙자 임승미 임우선 임윤희 임은정 임은진 임은화 임정미 임지연 임지영 임채나 장서원 장선경 장세경 장수연 장은심 장진희 전귀옥 전나영 전민선 전영희 전정현 전해정 정경임 정나란

힘이 되는 또 하나의 선물



기사 모집합니다!

소식지에서 나누고 싶은 회원님들의 이야기와 발도르프 교육과 센터에 대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회원님들의 말씀을 늘 귀담아 듣는 인지학센터가 되겠습니다.

인지학센터의 최근 소식과 강좌 안내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센터 홈페이지
<http://steinercenter.org/>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anthropo2>

트위터
<https://twitter.com/SteinerCenter>

나임발도르프평생교육원카페
<http://cafe.daum.net/waldorf.stuttgart>

페이스북
<https://ko-kr.facebook.com/steinercenter/>

인터넷의 다양한 통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나래 정나래 정다운 정명화 정승이 정수정 정수희 정은경 정은미 정은미 정재영 정지민 정지선 정지영 정태기 정향미 정현남 조미연 조미영 조순주 조용미 조일석 조정하 조지현 조혜선 조혜영 지현애 진금주 진미화 차유미 차일순 최가람 최로사 최미나 최민호 최분희 최석원 최선호 최성희 최수진 최순영 최아름 최영서 최영순 최유미 최유진 최은애 최은영 최인숙 최정진 최주옥 최진형 최향락 최현성 최혜경 하주현 한경아 한기옥 한성호 한영숙 한요엘 한은숙 한재용 한혜은 허설향 허윤정 허인숙 허정희 허혜무 현상두 홍경희 홍명애 홍윤문 홍은정 황선호 황영순 황인화 황정임 황지연 권진 이경 정선 도서출판푸른씨앗 아이숲어린이집 알프스어린이집

발도르프 교육 운동에 뜻을 함께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실 분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기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CMS 후원을 전화(02-832-0523)와 홈페이지(<http://steinercenter.org/>)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한은행 140-009-321956
(사)한국루돌프슈타이너인지학연구소

아이들을 가르치고 기르는 것은
현재 속에서 미래를, 물질 속에서 정신을,
지상의 삶 속에서
정신적 존재를 돌보는 일입니다.

루돌프 슈타이너 (1861-1925)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Center for Anthroposophy in Korea

04090 서울 마포구 독막로 230 (신수동) 우리빌딩 2층
T. 02-832-0523 | F. 02-832-0526 | anthroposophy@hanmail.net